



2020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발행인 이유림
편집인 양선희
기획편집 최봄 김예리 이기쁨
책임연구 이주아
디자인 디자인디
발행처 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20
전화 02-3705-6097
팩스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발행일 2020년 10월 12일

이 보고서는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사업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 I. 연구의 필요성

06 / II. 연구 방법 및 일정

10 / III. 설문 문항 구성

12 / IV.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20 / V. 연구결과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한국 개신교는 한국 여성과 다층적이고 다중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1885년 처음 개신교 선교사가 조선에 입국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근대 정신과 기독교 평등 이념은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시달리던 여성들에게 해방의 빛이었다. 그러나 개항기의 한국 개신교는 19세기 말 서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문화적인 한계 역시 가지고 있어, 여성들에게 존엄성과 잠재력, 지도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였으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가정과 여성, 사회와 남성이라는 성역할만을 주로 주입하는 역할 또한 하였다.

1980년대 경부터 한국 여성신학은 전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남성 중심적인 성경해석과 이에 기반한 이분법적인 젠더 이해,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왔다. 1992년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한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¹를 비롯해 교회, 특히 설교에서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여성의 역할 강조, 여성의 부정적 묘사, 여성의 배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 인식에 기반한 성평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비해 교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성평등 의식 조사(2018)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교회 내의 성차별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² 성차별은 단지 설교나 교인들의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시한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³는 인권측면에서 교회 교육교재를 분석하면서 교재 안에 나타난 남성 중심주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앙영웅의 모델은 전부 남성이고, 삽화의 인물들 또한 - 일반 백성 구성원들을 묘사할 때- 남성이 절대 다수인 동시에

여성 및 노인 구성원은 거의 없고, 전형적인 성 정체성과 고정적인 성역할 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성차별적 전통과 문화에 대하여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성평등한 교회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연구나 보고서, 설문조사 및 기사들 뿐 아니라 일반 평신도 청년들을 중심으로도 교회 성차별 실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습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고, 기독교의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할 계기와 전환의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면 뿐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부분, 그리고 가르쳐지지 않고 침묵되어온 성평등적인 성경해석의 필요성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설교 뿐 아니라 제도, 의사소통 체계, 문화적 관습과 태도 등 모든 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해 온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의 전통을 다시 들여다볼 때이다.

1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이 바라는 설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설교』를 비롯해 교회, 특히 설교에서 가부장제가 기대하는 여성의 역할 강조, 여성의 부정적 묘사, 여성의 배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주의 인식에 기반한 성평등에 대한 한국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비해 교회 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2017년 뉴스앤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9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직간접적으로 교회의 여성혐오 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성평등 의식 조사(2018)에서도 응답자의 67.6%가 교회 내의 성차별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² 성차별은 단지 설교나 교인들의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실시한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³는 인권측면에서 교회 교육교재를 분석하면서 교재 안에 나타난 남성 중심주의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신앙영웅의 모델은 전부 남성이고, 삽화의 인물들 또한 - 일반 백성 구성원들을 묘사할 때- 남성이 절대 다수인 동시에

2 정재영, ‘성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한국교회탐구센터 편, (서울: IVP: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187-200.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한국교회 인권교육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 11월 21일자. <http://www.kncc.or.kr/newsView/knc201811210002>

II 연구 방법 및 일정

1. 엘리엇 아이즈너의 교육과정(curriculum) 개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차별에 대한 현장의 대체적인 파악을 위해 정량적 연구인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세 차례의 집담회와 한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며 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엘리엇 아이즈너(Elliott Eisner)가 창안한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 내재적 교육과정(implicit curriculum), 영(O)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을 통해 교회 현장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교육학자인 엘리엇 아이즈너는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저서에서 교육과정을 위의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명시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개념, 원리, 인식, 가치, 기능 등으로,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도록 허용한 것을 의미한다. 즉, 교사가 의식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 언어나 문서 형태로 준비한 자료들이다.⁴ 내재적 교육과정 또는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은 교육기관에서의 경험과 교육 환경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교육기관의 조직 체계, 교육 규칙, 보상 체계, 수업 시간이나 배정, 건축물, 가구의 디자인 등이 주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교육과정은 대부분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전체에 파고들어 지적이고 사회적인 덕목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때문에 지배 문화와 가치를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⁵ 내재적 교육과정은 교사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교육과정 전반에 편재한 기대와 규칙에 의해 중요한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O)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교육과

정이다. 아이즈너는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나 내재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과정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발생한 무지는 단순히 가치중립적인 공백상태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 대안의 가능성, 상황이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된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해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될 위험이 있다. 아이즈너는 기존의 교과목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과 대안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모색을 결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배제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 온 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지적했다.⁶

이와 같은 아이즈너의 개념은 그동안 여러 조사나 분석에서 다루어 온 ‘명시적 차별’ 외에 교회 안의 조직이나 제도, 문화적 태도와 관습 등도 학습자인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육 요인으로 보고 조명해준다. 그동안 사회 조사에서 사용된 정량적 데이터들은 주로 명시적이고 명백한 사실들을 모아놓은 수치와 통계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심층적이고 보다 구조적이며 은밀하게 작동되는 근거의 사실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나아가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개념조차 생소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따라서 실태조사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이 세 가지 교육과정 개념을 기준으로, 선행연구 및 조사에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교육과정 부분에 집중하였다.

6
Elliott Eisner,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이해명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3), 124-140.

4
Elliott Eisner, 『교육적 상상력: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이해명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83), 120.

5
위의 책, 110-124.

2. 연구 방법 및 일정

우선 엘리엇 아이즈너가 창안한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 내재적 교육과정(implicit curriculum), 영(O)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와 조사들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교회의 성차별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등 구조적 문제(명시적 교육과정)와 공동체의 구조 및 의사전달의 양식 등

문화적인 태도와 관습들(내재적 교육과정)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사실 앞의 두 가지조차도 충분한 이의 제기과 주의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영 교육과정 개념에 의거한 조사나 분석은 매우 희소한 편이다. 그러나 교회의 성차별 구조나 태도가 성평등으로 가는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교육적 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성차별적인 설교나 일탈이 단지 일부 목회자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다시 성찰해보아야 할 성격의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루어진 분석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도출해냈다. 교회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세 가지 교육과정 모두에 대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성차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조차도 아직 가지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믿는 보수적·전통적 신학을 가진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안의 성차별’이라고 단순하게 질문하는 문항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했다. 즉, 여성주의적 시각에서는 충분히 성차별적인 여러 상황들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온당하고 정당한’ 일들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실한 교인’일수록 성평등 인식이 축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문장 구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성차별’이나 ‘성평등’ 등의 직접적인 단어 사용을 지양하였다. 1차적으로는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동시에 생활밀착형 문항들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2차적으로는 성차별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피조사자들이 교회 생활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교회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시적, 내재적(잠재적), 그리고 영(0)의 교육과정 모두를 아우를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지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각 해당 영역의 분량을 조절하였다.

성별과 나이, 교회를 다닌 연한을 변인으로 설정하고,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총 50여개의 문항으로, 교회 성차별 실태 및 이에

7 김상임, “기독교인 성·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여성신학』 40 (1999)

대한 인식(성평등 인식)의 수준을 동시에 조사하였다. 교회 내 14세-29세 청소년·청년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우선 총 14명의 1020명(소)년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에 따라 4개 집단(10대 남녀, 20대 남녀), 교회 연한이 오래된 혹은 모태신앙 집단, 스스로 강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인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정량적 연구 결과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회 성차별에 대한 대상별 집담회 총 3회(10대 청소년 5명, 20대 대학생 및 청년 5명, 교회 교사 및 학부모 5명) 및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학자) 간담회의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분석을 통합하여 교회 내 성차별 인식 실태조사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III 설문 문항 구성

엘리트 아이즈너는 교육과정을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영(0)의 교육과정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구분	정의	내용
명시적 교육과정	명백한 정규 교육과정	교재, 교육 목표, 실제 강의 내용
내재적 교육과정	물리적 조건, 지도 및 행정적 조직, 사회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	교육기관의 조직 체계, 교육 규칙, 보상 체계, 수업 시간이나 배정, 건축물, 가구의 디자인, 의사소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등
영(0)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것	가르쳐지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모든 것

본 연구는 이러한 아이즈너의 교육과정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한국 교회 현장에 대입하였다.

구분	종류	한국 교회 해당 영역
명시적 교육과정	교재	교육 교재
	교육목표	교회 표어, 수련회 주제 표어, 특별 프로그램(사경회, 부흥회, 제자양성 등) 제목
	실제 강의	설교 및 특강, 강의 등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적 교육
내재적 교육과정	조직체계	직제, 남성/여성 목회자가 담당하는 부서나 역할, 각 부서의 장 및 학생 임원진 구성의 성비
	교육 규칙 수업 시간이나 배정	아이즈너는 학교 교육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주로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한국 교회 교육부서 특성 상 이에 해당하는 영역은 제외함.

내재적 교육과정	성역할 고정관념 및 보상 체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상과 벌의 기제에 의하여 특정한 문화적 태도를 강화하는 것. '착한 여자'에 대한 낭만화와 순종 이데올로기 및 '나쁜 여자' 및 음녀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신체 및 행위 통제
	의사소통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공동체 전체의 일반 의사소통과정 및 의사결정과정/성평등 관련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
	건축물 및 가구의 디자인	교재 삽화, 교회에 걸려있는 그림, 포스터의 인물들, 교회 내부의 좌석 및 강단 배치, 교회 공간 용어((예) 자모실) 등
영(0)의 교육과정	가르쳐지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제된 모든 것	성차별적인 성경 본문의 성평등적 해석(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닌 당시의 시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고 가르쳐주는 해석)
		일반 성경 본문의 성평등적 해석
		성평등적 성경 본문의 발굴과 교육
		하나님의 여성(어머니) 이미지
		성경 및 기독교 전통 안의 여성 리더십

IV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 사전 조사

10-20대 남녀 총 14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설문조사의 문항 이해가 용이한지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양식은 네이버 폼으로, 형태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설문문항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1) 설문문항 중위 및 하위개념별 구성

중위 개념	하위 개념	해당 문항(갯수)
일반 사항 (7)	인적사항	번호 없음
	성평등 현황에 대한 인식(한국 사회, 본인의 교회)	1, 2, 34 (3)
	본인 신앙 인식 등	35-38 (4)
명시적 교육과정 (16)	성차별적 본문의 문자주의적 해석	3 (2)
	일반 본문의 성차별적 해석	가정위계 : 4 (2)
		성역할 분업 : 5, 8 (4)
		모성담론 : 6 (2)
		교회 위계 : 7 (2)
		순종 이데올로기 : 9 (2)
착한 여자/나쁜 여자 : 10, 11 (4)		
내재적 교육과정 (16)	건축물 및 가구의 디자인	건축물 : 12-14 (4)
		삽화 : 15 (1)

내재적 교육과정 (16)	성역할 분업	16~18 (3)
	조직체계	19~22 (4)
	의사소통체계	23~26 (4)
영의 교육과정 (11)	하나님 이미지	27 (1)
	성평등적 본문	28 (2)
	여성 리더십	29~31 (4)
	성차별적 본문에 대한 여성신학적 해석	32~3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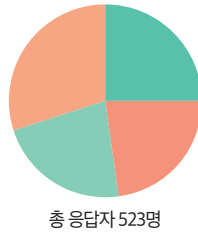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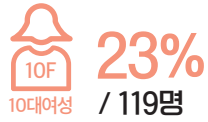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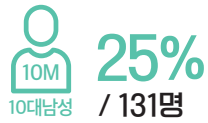
2) 사전조사 실시 및 결과

- ▶ 응답자 분포는 중등부 3명, 고등부 3명, 대학부(20~25세) 6명, 26~29세 2명(남자 7명, 여자 7명)의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 성경구절을 제시할 때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역개정판과 표준새번역을 모두 제시하고 선호도를 조사, 표준새번역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문문항에서는 표준새번역 성경구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 ▶ 한국 교회의 성평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설문하였을 때, ‘한국 교회’의 범위를 묻는 질문이 나와 이에 대한 정의를 설문조사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 ‘한국 교회란 귀하가 다니고 계신 교회를 포함하여 기사 및 미디어 등을 통하여 알고 계신 한국 개신교 교회의 모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 응답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 여성신학적 해석 등을 제시하는 문항에 생소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항을 더 해석해주려면 설문이 너무 길어져 설문 자체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기존문항대로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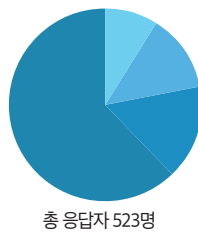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요약

응답자의 인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 및 성별



교회 연한



1차 분석은 변인을 각각 10대 남성, 10대 여성, 2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일반 인식	1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		
	2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		
명시적 교육과정	3	성차별적 본문 가르침 빈도(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등)	실태	3-1
			인식	3-2
	4	돕는 배필로서의 여성	실태	4-1
			인식	4-2
	5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	실태	5-1
			인식	5-2
	6	자녀 출산의 임무	실태	6-1
			인식	6-2
	7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교회 여성 리더십 제한	실태	7-1
			인식	7-2
	8	보살핌과 뒤에서의 헌신으로서의 여성 역할	실태	8-1
		인식	8-2	
9	여성의 덕목은 순종	실태	9-1	
		인식	9-2	
10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하는 여성의 의무	실태	10-1	
		인식	10-2	
11	유혹자인 여성/스스로를 경계해야 하는 여성의 의무	실태	11-1	
		인식	11-2	
내재적 교육과정	12	교회 환경(어린이 대변기 및 기저귀 교환대) 문제의식	실태	12-1
			인식	12-2
	13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 의식	인식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14	(남성 이름의) 교실과 건물의 명칭	인식	
	15	남성 중심적 교재 삽화	인식	
	16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	실태	
	17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	실태	
	18	장래에 담당하고 싶은 사역	인식	
	19	여성목사 안수 현황	인식	
	20	여성 리더십 현황	실태	
	21	본인 부서 학생회장의 성별	실태	
	22	본인 부서 임원진의 성비	실태	
	23	한국교회 성폭력 문제 인식	실태	
	24	기독교 성폭력센터 존재 유무	인식	
	25	본인 교회 성평등문제 논의 유무	실태	
	26	본인 교회 성폭력문제 관련 기관 존재 유무	실태	
영의 교육과정	27	하나님의 여성성(어머니) 이미지 성경구절 인지 여부	실태	
	28	초대교회 세례교백문 뜻 인지 여부	실태	28-1
			인식	28-2
	29	초대 교회 여성리더 인지 여부	실태	
	30	성경 여성리더 인지 여부	실태	
	31	부활의 첫 증인 여성	실태	31-1
			인식	31-2
32	'뚝배기'의 성평등적 해석	실태	32-1	
		인식	32-2	
33	'여자는 잠잠하라'의 성평등적 해석	실태	33-1	
		인식	33-2	
일반인식	34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2번 문항과 동일 질문)	인식	
	35	(본인) 교회 출석 이유	인식	

분류	문항	내용	상세	상세 문항
	36	(본인)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 수준	인식	
	37	(본인) 부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 수준	인식	
	38	본인의 신앙심의 강함 수준	인식	

1차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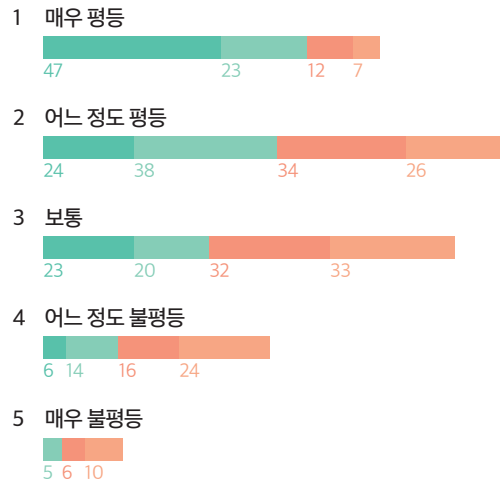
- ▶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하여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와 교회가 대체로 평등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하였다. 반면 여성은 한국 사회와 교회가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보았다. 특히 남녀 모두 2번 문항에서는 한국 사회보다 교회의 성평등 지수에 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설문조사 말미에 나온 같은 질문 34번에서는 교회의 불평등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다차원적이며 응답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 -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십의 배제 현황, 성평등적 성경해석, 삽화나 건물 구조 등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 등을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응답자의 인식에 변화를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 설문조사 진행 후 응답자들에게 다시 물어본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의 한국 교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앞선 2번 문항의 응답보다 '평등하다'는 응답이 감소했다. 2번 문항에서 66%, 절반 이상의 남성이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34번 문항에서는 13%가 하락한 53%의 남성이 교회가 평등한 곳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은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 감소했다.
- ▶ 이와 반대로,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번 문항의 응답보다 34번 문항에서 증가했다. 남성은 12% → 21% (9% 증가), 여성은 28% → 38% (10% 증가)의 응답자가 한국 교회의 불평등을 인식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는 응답의 증가율이 20대 청년보다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한국 교회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청년이 3% 증가한 반면, 10대 청소년은 16%가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10대 남성은 16%, 10대 여성은 17% 증가한 비율이 한국 교회의 불평등을 인식하였다.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평등
- 2 어느 정도 평등
- 3 보통
- 4 어느 정도 불평등
- 5 매우 불평등

	1	2	3	4	5
10대 남성	47%	24%	23%	6%	0%
20대 남성	23%	38%	20%	14%	5%
10대 여성	12%	34%	32%	16%	6%
20대 여성	7%	26%	33%	24%	10%
10대	30%	29%	27%	11%	3%
20대	14%	31%	28%	19%	8%
남성	36%	30%	22%	10%	2%
여성	9%	30%	33%	2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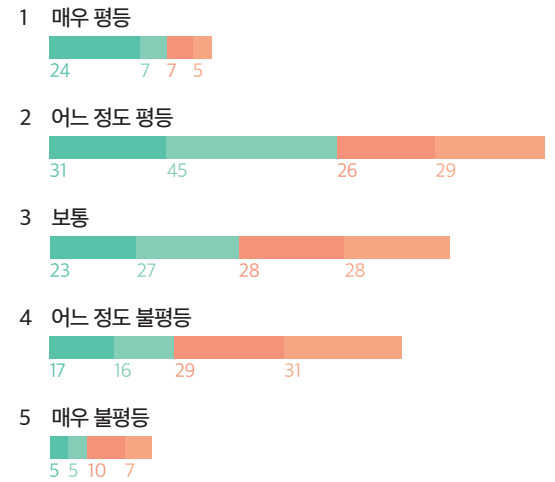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평등
- 2 어느 정도 평등
- 3 보통
- 4 어느 정도 불평등
- 5 매우 불평등

	1	2	3	4	5
10대 남성	24%	31%	23%	17%	5%
20대 남성	7%	45%	27%	16%	5%
10대 여성	7%	26%	28%	29%	10%
20대 여성	5%	29%	28%	31%	7%
10대	16%	28%	26%	23%	7%
20대	6%	36%	28%	24%	6%
남성	16%	37%	26%	16%	5%
여성	6%	28%	28%	30%	8%



2) 명시적 교육과정

2-1) 명시적 교육과정 실태

▶ 명시적 교육과정을 묻는 3번부터 11번까지의 문항들은 1) 실태와 2) 인식을 묻는 질문들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명시적 교육과정의 실태를 묻는 질문들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과 강조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3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등의 성경구절들이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관여하는 전형적인 가르침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는 ‘많이 강조’ 내지는 ‘강조’ 보다는 ‘보통’이나 ‘강조되고 있지 않다’ 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정 담론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맞벌이 증가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의 원인으로는 1) 교육 대상의 연령대를 반영한 선택적 가르침과 2) 시대적 변화의 반영을 생각할 수 있다.

▶ 단, 명시적 가르침인 설교나 교재와는 별도로 여전히 내재적 교육과정인 문화적 태도 안에서는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이 12번 이하의 문항부터 나타난다. 나아가 여전히 성별 위계 인식에 대한 강조점은 여전히 것으로 나타났다. 4-1번의 가정의 위계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맞벌이가 필수적이 되어가는 현대 사회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은 시대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를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위계질서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 기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 명시적 교육과정 인식

▶ 명시적 교육과정의 가르침에 대한 인식 부분은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인다. 성차별적 본문 및 가르침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이(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귀하는 귀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얼마나 가르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5:22-23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11-15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디도서 2:4-5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깨우쳐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3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3-1

귀하는 귀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얼마나 가르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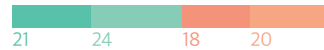
- 1 많이 강조함
- 2 강조함
- 3 보통
- 4 대체로 강조 안함
- 5 전혀 강조 안함

	1	2	3	4	5
10대 남성	3%	21%	34%	19%	23%
20대 남성	5%	24%	31%	24%	16%
10대 여성	3%	18%	29%	24%	26%
20대 여성	3%	20%	34%	2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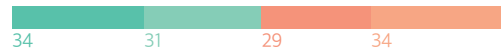
1 많이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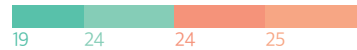
2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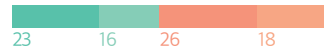
3 보통



4 대체로 강조 안함



5 전혀 강조 안함



3-2

위의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 성경 말씀이므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 2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
- 3 성경 말씀이지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 4 성경 말씀이지만 당시의 시대문화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1	2	3	4	5
10대 남성	24%	29%	20%	32%	18%
20대 남성	12%	43%	20%	47%	8%
10대 여성	13%	21%	30%	41%	24%
20대 여성	18%	24%	18%	5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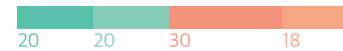
1 순종



2 명령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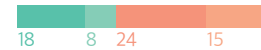
3 이상하다고 느낌



4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5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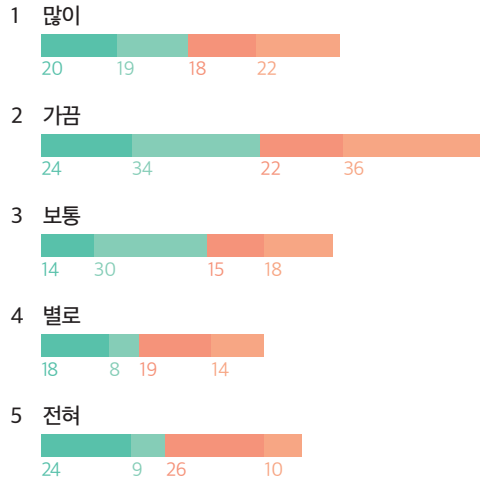
4-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으며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야 하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1	2	3	4	5
10대 남성	20%	24%	14%	18%	24%
20대 남성	19%	34%	30%	8%	9%
10대 여성	18%	22%	15%	19%	26%
20대 여성	22%	36%	18%	1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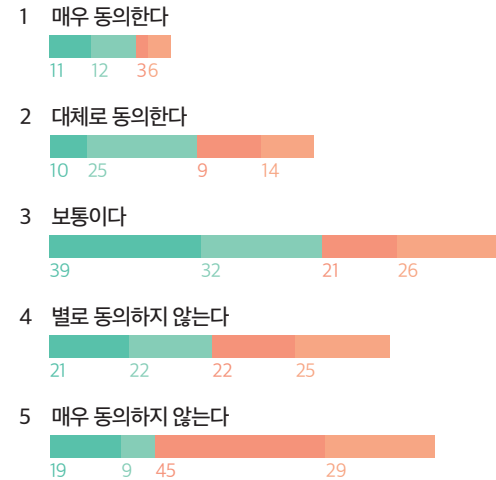


4-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11%	10%	39%	21%	19%
20대 남성	12%	25%	32%	22%	9%
10대 여성	3%	9%	21%	22%	45%
20대 여성	6%	14%	26%	25%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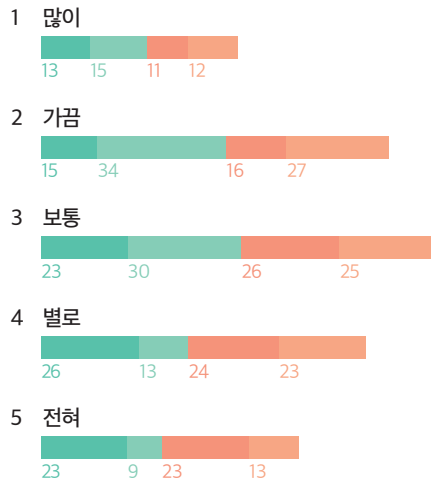
5-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임무는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사랑이 많고 어진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성의 일이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자는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다.

	1	2	3	4	5
10대 남성	13%	15%	23%	26%	23%
20대 남성	14%	34%	30%	13%	9%
10대 여성	11%	16%	26%	24%	23%
20대 여성	12%	27%	25%	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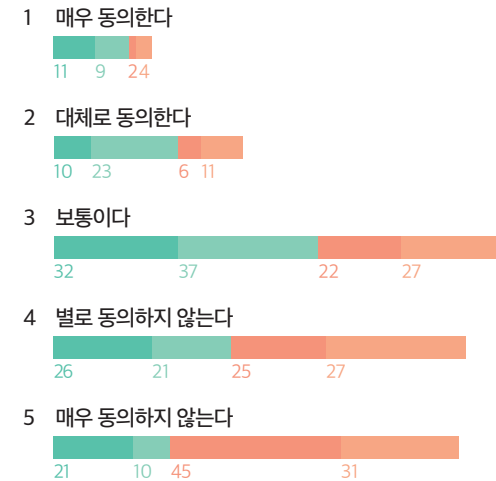


5-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11%	10%	32%	26%	21%
20대 남성	9%	23%	37%	21%	10%
10대 여성	2%	6%	22%	25%	45%
20대 여성	4%	11%	27%	27%	31%



4번 문항 & 5번 문항
실태 비교

가정 위계/성역할 분업

4-1번은 가정에서 남녀간의 위계가 존재함을 반영하는 교회의 설교나 가르침의 빈도를, 5-1번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는 성역할 분업에 대한 설교 또는 가르침의 빈도를 묻는 문항이다.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에게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정 담론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맞벌이 증가의 영향으로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 세대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10대 청소년의 48%, 20대 청년의 31%가 성별 분업에 따른 남녀의 역할 고정에 대한 가르침을 '별로' 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37%와 여성의 41%도 해당 가르침을 별로 배우지 않거나 전혀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답했다.

그러나 4-1번의 가정의 위계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가정에서 남성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맞벌이가 필수적이 되어가는 현대 사회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여성이 가정에 우선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은 시대적 힘을 잃어가고 있는 반면, 여성은 맞벌이를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의 위계질서는 남성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중적 기준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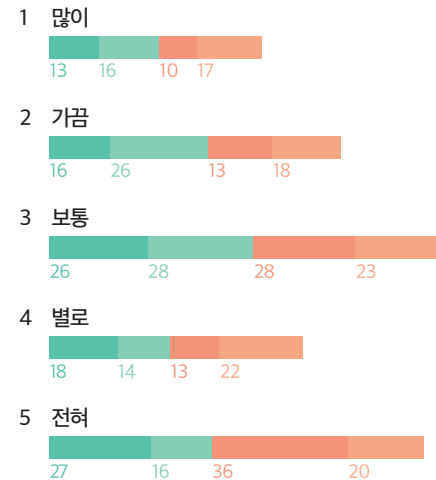
6-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다. 비혼(결혼하지 않음)을 주장하거나 결혼하고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반드시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좋다.

	1	2	3	4	5
10대 남성	13%	16%	26%	18%	27%
20대 남성	16%	26%	28%	14%	16%
10대 여성	10%	13%	28%	13%	36%
20대 여성	17%	18%	23%	2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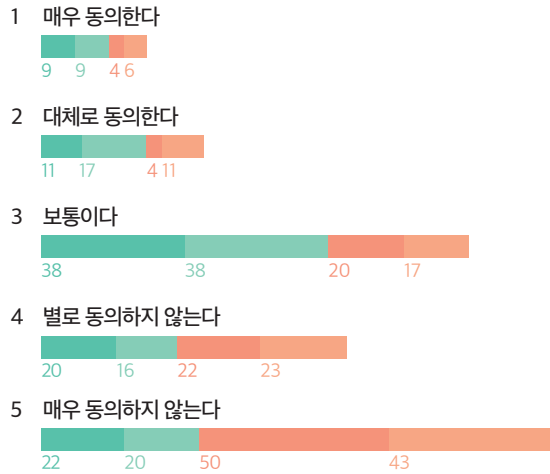
6-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9%	11%	38%	20%	22%
20대 남성	9%	17%	38%	16%	20%
10대 여성	4%	4%	20%	22%	50%
20대 여성	6%	11%	17%	23%	43%



6-1번 문항 & 6-2번 문항 분석

모성 담론

6-1번은 모성 담론에 대한 교회 설교나 가르침의 빈도를 묻는 문항이다.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많이’, ‘가끔’, ‘보통’, ‘별로’, ‘전혀’의 응답률이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10대 남성,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2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보통(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나 확실하지 않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나 해당 설교나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거나 별로 또는 전혀 배우지 않은 비율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교회에서 여성의 자녀출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으로 여겨지는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6-2번에서는 이러한 모성 담론에 대한 교회 설교나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에게 자녀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으로서 강조하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였다. 특히 10대 여성의 72%, 20대 여성의 66% 순으로 여성들은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과 취업, 결혼 및 자녀출산이 어려운 현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어느 정도 통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일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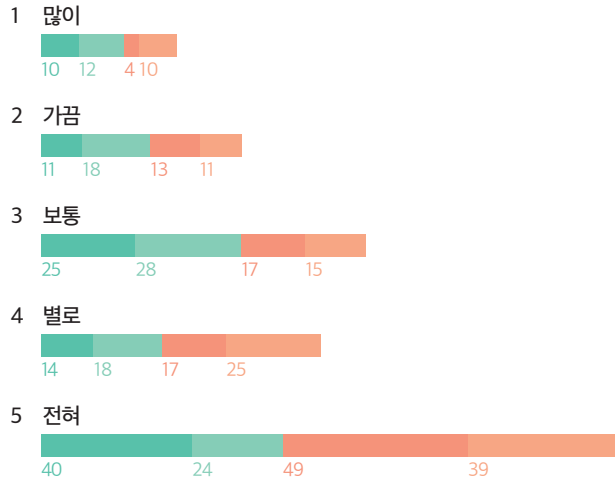
7-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였으므로 목사가 될 수 없다. 사모나 전도사로 목사님을 보조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다.

	1	2	3	4	5
10대 남성	10%	11%	25%	14%	40%
20대 남성	12%	18%	28%	18%	24%
10대 여성	4%	13%	17%	17%	49%
20대 여성	10%	11%	15%	25%	39%
10대	7%	12%	22%	15%	44%
20대	11%	14%	20%	22%	33%
남성	11%	14%	26%	16%	33%
여성	7%	12%	17%	21%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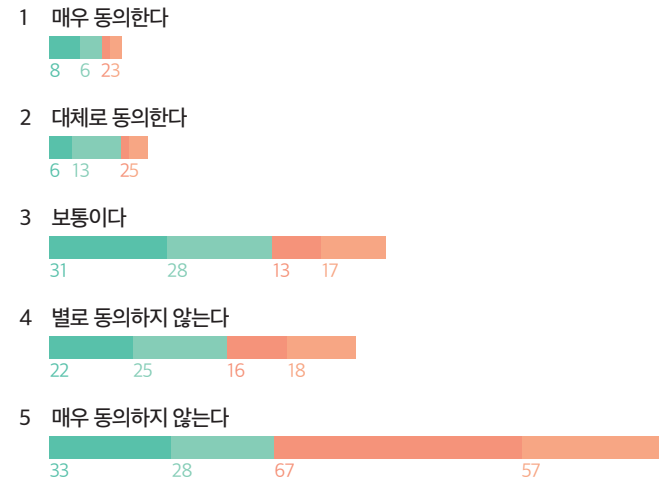


7-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8%	6%	31%	22%	33%
20대 남성	6%	13%	28%	25%	28%
10대 여성	2%	2%	13%	16%	67%
20대 여성	3%	5%	17%	18%	57%
10대	5%	4%	23%	19%	49%
20대	4%	8%	23%	21%	44%
남성	7%	9%	31%	23%	30%
여성	2%	4%	16%	17%	61%



7-1번 문항 & 7-2번 문항 분석

교회 위계

교회 위계에 의한 여성 목사 안수 허용에 관하여 묻는 7-1번에서는 응답자들 사이에서 해당 설교나 가르침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과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을 별도로 나누어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치는 현장 분석의 유의미한 결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인 인식 또는 성별 고정 역할이 포함된 설교나 가르침이 3번~11번 문항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많이’, ‘가끔’ 그리고 ‘보통’의 수치가 50% 이상인 부분이 있었으므로 여전히 교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교와 가르침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번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여성 목사 안수 금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인데 10대와 20대 남녀 모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0대의 68%, 20대의 65%를 기록하였고, 남성 53%, 여성 78%의 높은 통계를 보이며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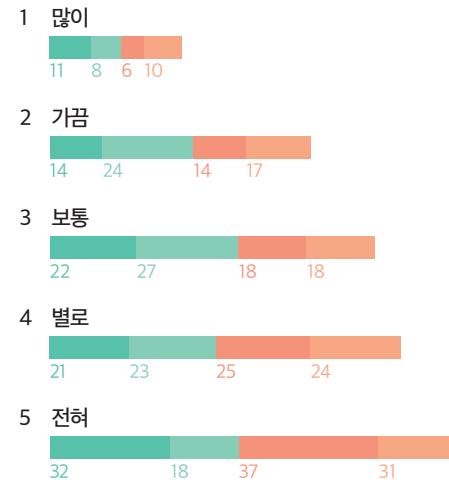
8-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여성들은 부드럽고 어질게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여성들은 보살피는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돌보고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름다운 여성(여성 목사, 여성 장로, 여성 전도사 등 모두 해당)의 일이다.

	1	2	3	4	5
10대 남성	11%	14%	22%	21%	32%
20대 남성	8%	24%	27%	23%	18%
10대 여성	6%	14%	18%	25%	37%
20대 여성	10%	17%	18%	2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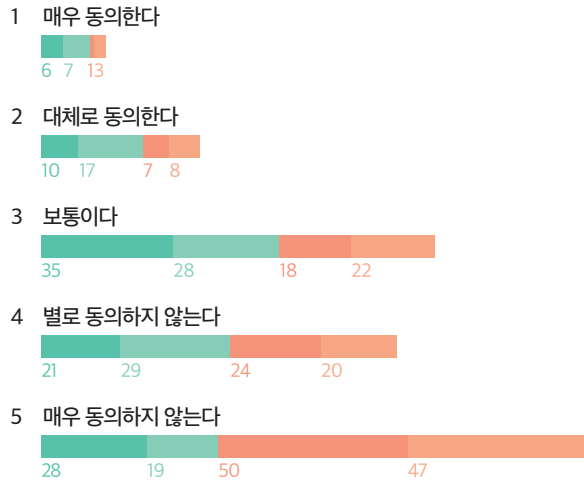


8-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6%	10%	35%	21%	28%
20대 남성	7%	17%	28%	29%	19%
10대 여성	1%	7%	18%	24%	50%
20대 여성	3%	8%	22%	2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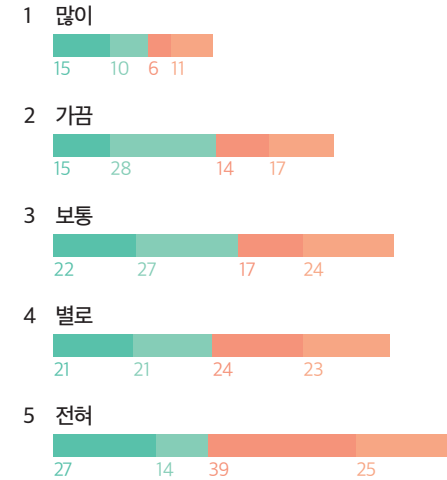
9-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여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종할 때 빛이 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스더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은 것이다. 순종은 여성의 가장 큰 덕목이다.

	1	2	3	4	5
10대 남성	15%	15%	22%	21%	27%
20대 남성	10%	28%	27%	21%	14%
10대 여성	6%	14%	17%	24%	39%
20대 여성	11%	17%	24%	2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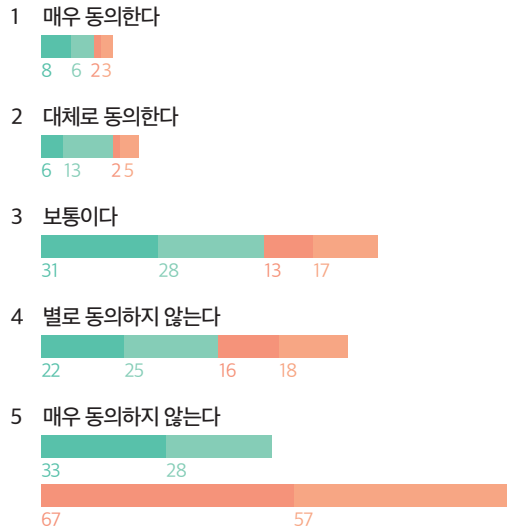


9-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8%	6%	31%	22%	33%
20대 남성	6%	13%	28%	25%	28%
10대 여성	2%	2%	13%	16%	67%
20대 여성	3%	5%	17%	18%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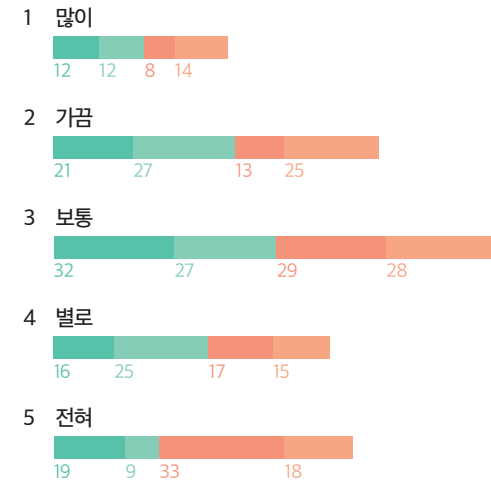
10-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인 여자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이다. 늘 몸가짐과 옷차림을 조심하고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1	2	3	4	5
10대 남성	12%	21%	32%	16%	19%
20대 남성	12%	27%	27%	25%	9%
10대 여성	8%	13%	29%	17%	33%
20대 여성	14%	25%	28%	1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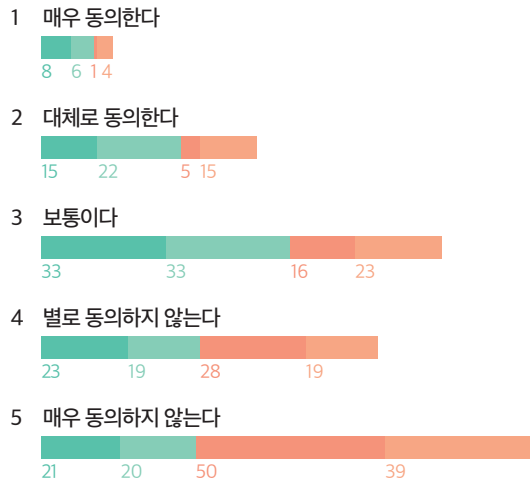


10-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8%	15%	33%	23%	21%
20대 남성	6%	22%	33%	19%	20%
10대 여성	1%	5%	16%	28%	50%
20대 여성	4%	15%	23%	19%	39%



9번 문항 & 10번 문항 비교

순종 이데올로기, 착한 여자 낭만화

9-1번과 9-2번은 여성의 덕목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대한 실태와 응답자의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9-1번에서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다’(‘가끔’과 ‘보통’)와 ‘들어본 적이 없다’(‘별로’와 ‘전혀’)가 비슷한 통계를 보인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행해졌던 시대와는 달리 2020년에 행해진 본 설문조사에서는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0-1번과 10-2번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이를 현숙한 그리스도인 여성이라 강조하는 설교와 가르침은 앞서 9-1번의 가르침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남녀 모두에게서 ‘전혀’ 또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보다 ‘많이’ 또는 ‘대체로 들어보았다’ 그리고 ‘보통(들어본 적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번과 10-2번에서 이러한 설교나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특히, 여성에게서 높은 것을 살펴볼 때, 교회 현장의 가르침과 10대, 20대 여성들의 인식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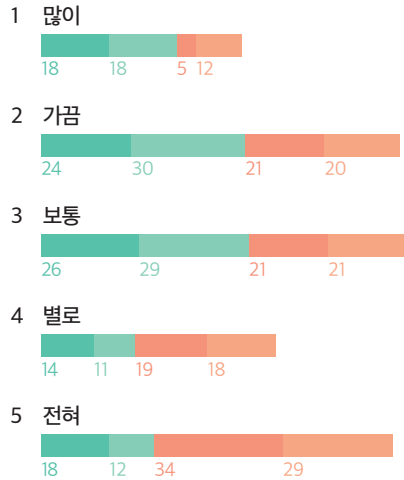
11-1

귀하는 귀하가 다니는 교회나 기독교 미디어 등을 통하여 이러한 가르침이나 말들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1 많이 들어보았다
- 2 가끔 들어보았다
- 3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 4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 5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여자 때문에 죄를 저지르거나 (다윗과 밧세바) 여자의 유혹 때문에 큰 일을 당한다.(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남자는 늘 여자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달라.

	1	2	3	4	5
10대 남성	18%	24%	26%	14%	18%
20대 남성	18%	30%	29%	11%	12%
10대 여성	5%	21%	21%	19%	34%
20대 여성	12%	20%	21%	18%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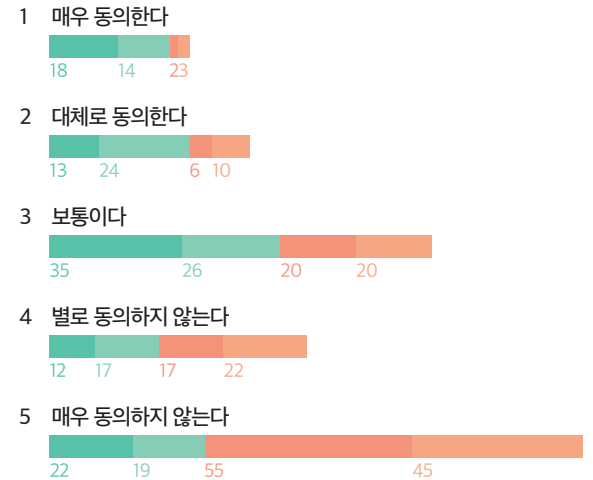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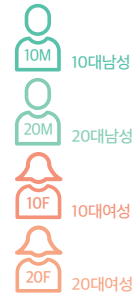


11-2

귀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 1 매우 동의한다
- 2 대체로 동의한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18%	13%	35%	12%	22%
20대 남성	14%	24%	26%	17%	19%
10대 여성	2%	6%	20%	17%	55%
20대 여성	3%	10%	20%	22%	45%



11-1번 문항 & 11-2번 문항 분석

여성의 음녀화

11-1번과 11-2번은 여성을 ‘남성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남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으로 묘사하는 설교나 가르침에 대한 질문이다. 11-1번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모든 응답자들 사이에서 50%가 넘지 않는 점을 미루어볼 때, 10대, 20대의 남녀의 50% 이상이 이러한 가르침을 교회 현장에서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지자로 간주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르침에 10대, 20대 여성들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10대, 20대 남성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유혹자 담론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는 신앙심이 강한 집단과 일반 집단 사이에서는 더욱 큰 차이를 보인다.

▶ 모든 문항에서 여성은 대체로 ‘비동의’와 ‘매우 비동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비동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목사님 보조의 사모 역할(78%)
-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70%)
-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69%)
- 6번 자녀출산의 의무(68%)
-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68%)
- 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66%)
-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63%)
- 4번 돕는 배필(60%)

▶ 남녀를 막론하고 ‘비동의’ 부분이 높은 순서대로 가르침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목사님 보조의 사모 역할(남성 53% 여성 78%)
-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남성 49% 여성 69%)
-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남성 44% 여성 68%)
- 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남성 41% 여성 66%)
-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남성 36% 여성 70%)
- 6번 자녀출산의 의무(남성 38% 여성 68%)
-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남성 39% 여성 63%)
- 4번 돕는 배필(남성 36% 여성 60%)

▶ 남녀를 막론하고 동의의 부분이 높은 순서대로 가르침을 정렬하면 다음과 같다.

- 11번 유혹자로서의 여성(남성 34% 여성 11%)
- 4번 돕는 배필(남성 28% 여성 17%)
- 5번 여성의 우선 순위는 가정(남성 26% 여성 12%)

-
- 10번 정숙하고 단정한 여성(남성 23% 여성 14%)
 - 6번 자녀출산의 의무(남성 23% 여성 13%)
 - 9번 순종이 여성의 덕목(남성 20% 여성 10%)
 - 8번 보살핌과 뒤에서 헌신하는 여성의 덕목(남성 19% 여성 9%)
 - 7번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남성 16% 여성 6%)
-

- * 여성의 우선 순위를 가정으로 두는 성별 고정관념은 여전히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여성의 덕목 부분에 있어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념이 남성들에게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한국 교회의 설교 또는 가르침에 포함된 성평등 수준의 실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여성들은 대체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를 많이 응답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은 6-2번의 자녀출산, 7-2번의 여성 목사 안수의 금지, 8-2번 여성의 보조적 역할 강조, 9-2번 여성에게 순종 강조와 마지막으로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자로 간주하는 문항이다.
- 또 다른 눈여겨볼 점은 4번~11번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에는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가 확연하며 특히 문항에 따라 10대 여성에 비하여 20대 여성의 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내재적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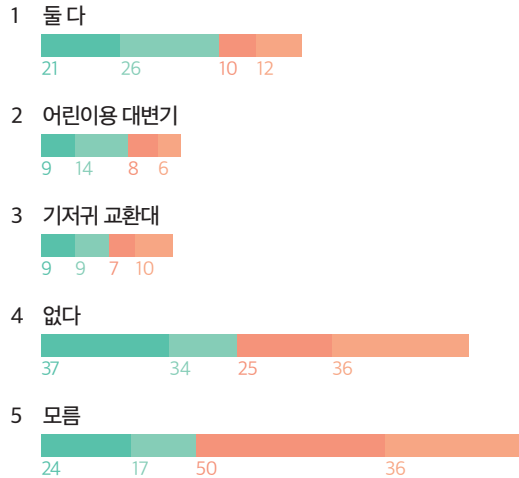
- ▶ 성경 본문과 그 가르침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보다 내재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흥미롭다. 기저귀 교환대 및 어린이용 대변기 설치,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건축물의 명칭, 남성인물 중심적 삽화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성평등 인식이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의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즉, 교회에서 배우는 성별 고정관념과 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동시에 속하며 행위하는 존재이고 앞으로 이들 청년들은 사회에서 행위할 영역과 시간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세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의 이원화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 ▶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 조직 실태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 조사와 일치하게 여전히 중요한 직위 및 조직기구가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 교육과정 못지 않게 내재적 교육과정이 성별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 및 가르침 외에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의 여성리더십의 확대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 ▶ 특히 학생 임원진의 성비가 비슷함에도 여전히 남성이 회장직을 맡는 비율이 높은 결과는 사회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비추어진다.
- ▶ 내재적 교육과정에서 특히 자모실 명칭 등과 관련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속해도 상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남성에 57%를 차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인 집단과 아닌 집단(20대 남성)의 설문조사가 행해진다면,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환경이 청년 남성의 성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보다 분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 한국 교회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현재 부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달기구 또는 의사소통 과정이 구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교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귀하가 다니는 교회의 남성 화장실에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가 있습니까?

- 1 둘 다 있다
- 2 기저귀 교환대는 없고 어린이용 대변기는 있다
- 3 기저귀 교환대는 있고 어린이 대변기는 없다
- 4 둘 다 없다
- 5 잘 모르겠다

	1	2	3	4	5
10대 남성	21%	9%	9%	37%	24%
20대 남성	26%	14%	9%	34%	17%
10대 여성	10%	8%	7%	25%	50%
20대 여성	12%	6%	10%	36%	36%
10대	16%	8%	8%	32%	36%
20대	18%	9%	10%	35%	28%
남성	23%	11%	9%	36%	21%
여성	11%	7%	9%	31%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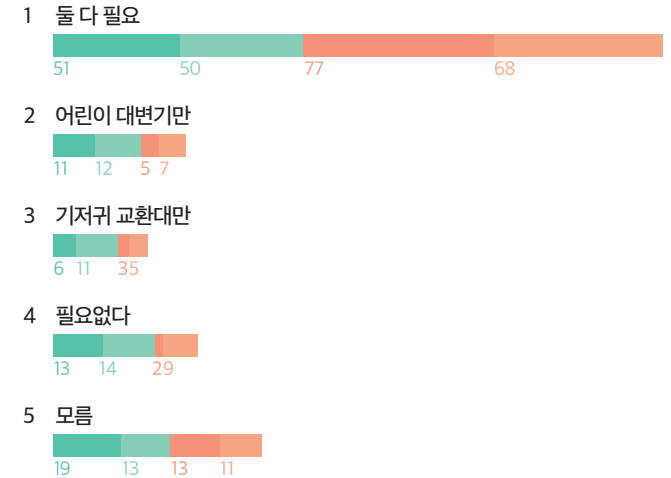


12-2

만약 둘 다 없다면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 대변기 둘 다 필요하다
- 2 어린이 대변기만 필요하다
- 3 기저귀 교환대만 필요하다
- 4 둘 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1	2	3	4	5
10대 남성	51%	11%	6%	13%	19%
20대 남성	50%	12%	11%	14%	13%
10대 여성	77%	5%	3%	2%	13%
20대 여성	68%	7%	5%	9%	11%
10대	64%	8%	4%	8%	16%
20대	60%	9%	8%	11%	12%
남성	51%	12%	9%	13%	15%
여성	72%	6%	4%	6%	12%



12-1번 문항 & 12-2번 문항 분석

12-1번과 12-2번은 내재적 교육과정인 교회 환경에 대한 한국 교회 실태와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의 유무에 대하여 ‘둘 다 없다’는 응답이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아이 양육과는 관심사나 생활 영역이 다른 10대와 20대들의 특성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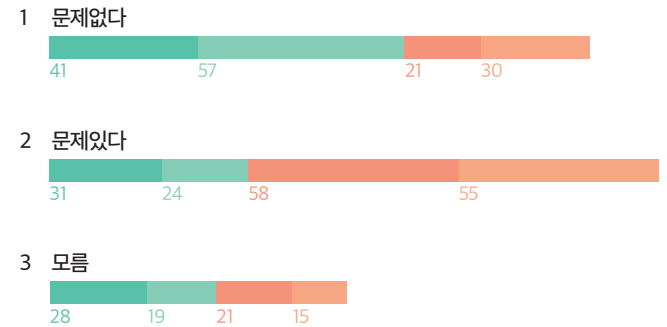
하지만 12-2번에서 응답자들에게 남성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10대와 20대가 남성의 아이 양육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을 반영하며 그러한 인식을 교회 환경에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13

어린 아기와 부모님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의 이름을 모자(母子)예배실 혹은 자모(子母)실로 하는 것은 아기는 엄마가 주로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속해도 상관없다)
- 2 변경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있다)
- 3 잘 모르겠다

	1	2	3
10대 남성	41%	31%	28%
20대 남성	57%	24%	19%
10대 여성	21%	58%	21%
20대 여성	30%	55%	15%
10대	32%	44%	24%
20대	41%	42%	17%
남성	49%	28%	23%
여성	26%	56%	18%



13번 문항 분석

13번 문항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교회 공간의 명칭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어린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모자(母子) 예배실’ 혹은 ‘자모(子母)실’로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 좋다(문제가 있다)’가 가장 높았으며 10대 여성(58%)과 20대 여성(55%)의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속해도 상관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와 20대 남성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중 20대 남성이 57%를 차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에서 10대 남성과 20대 남성의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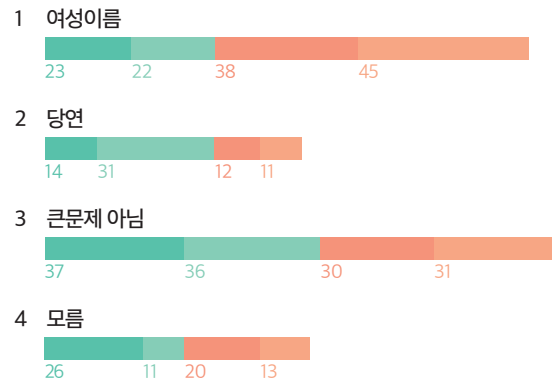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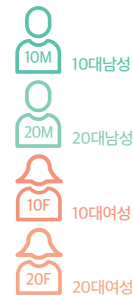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경해석과는 큰 관계가 없는 일반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인 집단과 비기독교인 집단의 설문조사가 행해진다면, 가부장적 성경해석이 일반적 성평등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보다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4

다음은 본 연구진이 조사한 사례입니다. 청년부 등의 조직 이름, 건물 교실이나 건물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경우 성경 속에 나오는 남성의 이름을 따서 짓고 있습니다.

- 1 성경 속에 나오는 여성의 이름도 넣어서 지어야 한다
- 2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 중 남성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 3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
- 4 잘 모르겠다

	1	2	3	4
10대 남성	23%	14%	37%	26%
20대 남성	22%	31%	36%	11%
10대 여성	38%	12%	30%	20%
20대 여성	45%	11%	31%	13%
10대	30%	13%	34%	23%
20대	35%	19%	34%	12%
남성	22%	22%	37%	19%
여성	42%	11%	3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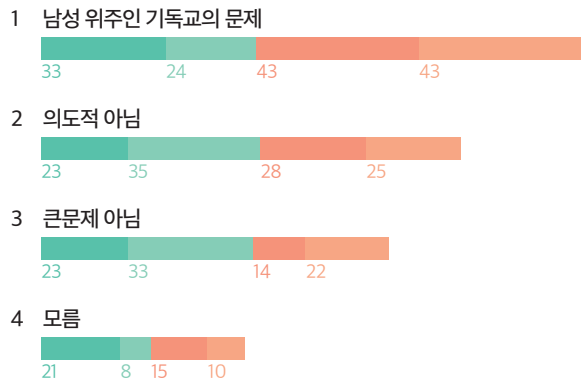
15

공과 공부 교재의 표지나 삽화 등에서 이스라엘 구성원이 다 같이 이스라엘 성전의 회복을 축하하는 장면입니다. 남녀노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단 한 명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남성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어야 하며 남성 위주로 생각 하는 교회(기독교)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 2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는 것이 좋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삽화가의 실수인 것 같다
- 3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
- 4 잘 모르겠다

	1	2	3	4
10대 남성	33%	23%	23%	21%
20대 남성	24%	35%	33%	8%
10대 여성	43%	28%	14%	15%
20대 여성	43%	25%	22%	10%
10대	38%	25%	19%	18%
20대	35%	30%	27%	8%
남성	29%	29%	28%	14%
여성	43%	26%	19%	12%



15번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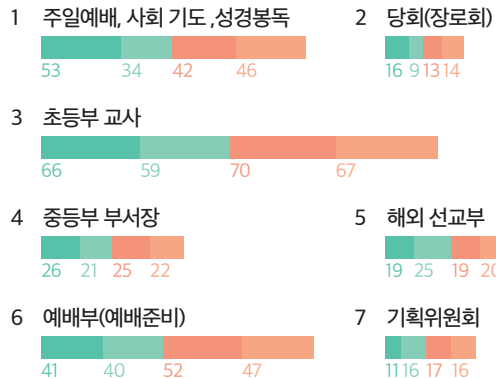
15번 문항에서는 기독교교육 교재에 반영된 남성중심적 삽화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어야 하며 남성 위주로 생각하는 교회(기독교)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10대, 20대 각각 43%로 가장 높았다. ‘여성 남성 골고루 그려 넣는 것이 좋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삽화가의 실수인 것 같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두어도 상관없다’의 응답도 상당수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다’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

16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사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 2 당회(장로회)
- 3 초등부 교사
- 4 중등부 부서장
- 5 해외 선교부
- 6 예배부(예배준비)
- 7 기획위원회
- 8 중등부 교사
- 9 고등부 부서장
- 10 청소년관리부
- 11 미디어방송부
- 12 새가족부
- 13 고등부 교사
- 14 대학부 부서장
- 15 주방봉사부
- 16 재정위원회
- 17 교육위원회
-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 19 청년부 부서장
- 20 경조부
- 21 차량부
- 22 영유아부 교사
- 23 초등부 부서장
- 24 국내 선교부
-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53%	16%	66%	26%	19%	41%	11%	52%	21%	34%
20대 남성	34%	9%	59%	21%	25%	40%	16%	43%	15%	36%
10대 여성	42%	13%	70%	25%	19%	52%	17%	61%	18%	43%
20대 여성	46%	14%	67%	22%	20%	47%	16%	54%	14%	4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15%	27%	43%	9%	40%	19%	17%	33%	12%	8%
20대 남성	13%	35%	40%	17%	43%	17%	22%	42%	22%	12%
10대 여성	17%	31%	44%	8%	50%	16%	18%	45%	27%	13%
20대 여성	18%	41%	46%	13%	48%	17%	17%	41%	17%	15%
	21	22	23	24	25					
10대 남성	5%	54%	31%	12%	35%					
20대 남성	5%	50%	32%	19%	41%					
10대 여성	3%	55%	29%	19%	43%					
20대 여성	4%	60%	22%	1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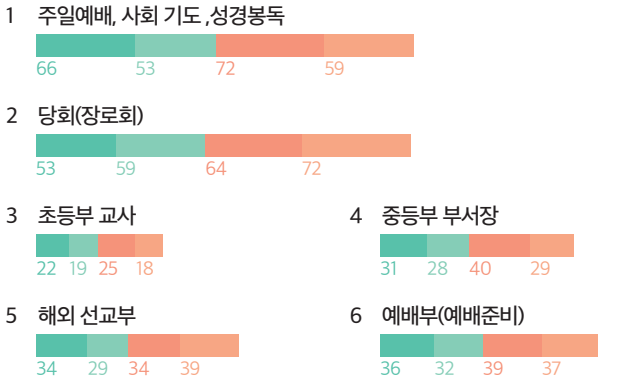


17

귀하가 다니는 교회에서 주로 남성들이 담당하는 사역을 모두 골라주세요.

-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 2 당회(장로회)
- 3 초등부 교사
- 4 중등부 부서장
- 5 해외 선교부
- 6 예배부(예배준비)
- 7 기획위원회
- 8 중등부 교사
- 9 고등부 부서장
- 10 청소관리부
- 11 미디어방송부
- 12 새가족부
- 13 고등부 교사
- 14 대학부 부서장
- 15 주방봉사부
- 16 재정위원회
- 17 교육위원회
-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 19 청년부 부서장
- 20 경조부
- 21 차량부
- 22 영유아부 교사
- 23 초등부 부서장
- 24 국내 선교부
-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66%	53%	22%	31%	34%	36%	39%	27%	36%	18%
20대 남성	53%	59%	19%	28%	29%	32%	34%	26%	29%	23%
10대 여성	72%	64%	25%	40%	34%	39%	37%	25%	37%	17%
20대 여성	59%	72%	18%	29%	39%	37%	43%	22%	34%	1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40%	22%	30%	29%	17%	38%	34%	16%	26%	26%
20대 남성	34%	25%	26%	35%	15%	41%	31%	12%	26%	23%
10대 여성	34%	22%	32%	36%	12%	34%	29%	12%	33%	24%
20대 여성	42%	20%	21%	34%	10%	50%	36%	12%	31%	28%
	21	22	23	24	25					
10대 남성	51%	9%	15%	31%	39%					
20대 남성	46%	15%	15%	28%	35%					
10대 여성	48%	13%	18%	24%	34%					
20대 여성	55%	8%	15%	30%	26%					



16번 & 17번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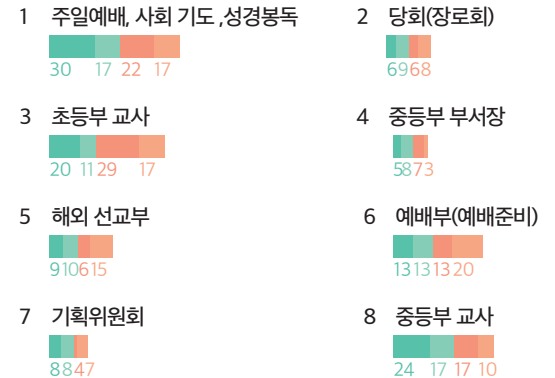
16번과 17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의 조직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이다. 16번 문항의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초등부 교사’, ‘영·유아부 교사’, ‘중등부 교사’, ‘전도부(방문/노방 전도)’가 많았다. 전통적으로 여성이 많이 담당해왔던 ‘주방봉사부’와 ‘청소관리부’도 상당수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고등부 교사’와 ‘새가족부’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에서 여성은 주로 교사와 주방 및 청소, 새가족 관리와 같은 일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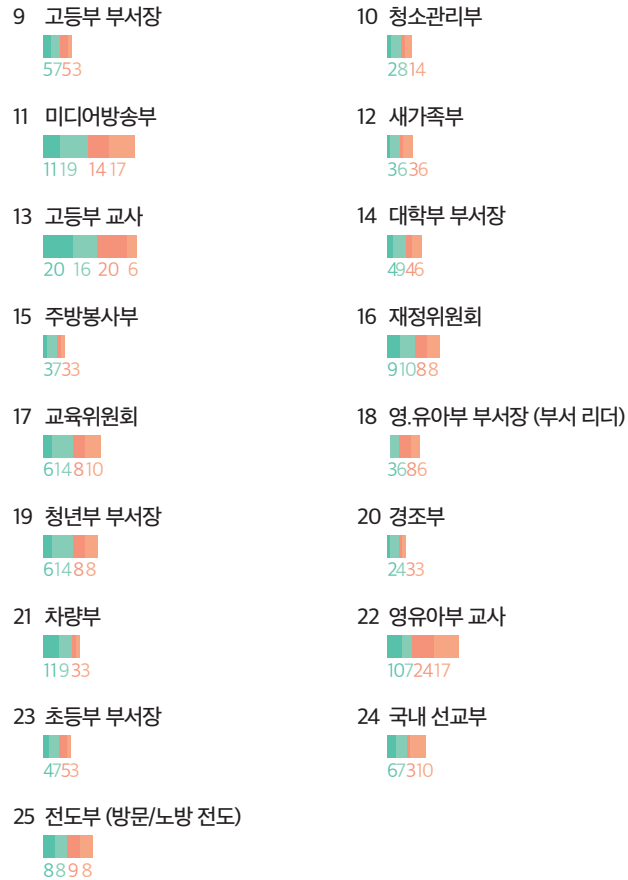
반면에 남성들이 주로 담당하는 사역을 묻는 17번 문항을 보면 ‘주일 예배의 사회, 기도 및 성경봉독’, ‘당회(장로회)’, ‘차량부’, ‘재정위원회’, ‘미디어방송부’가 많았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 ‘부서장’과 ‘교육위원회’도 남성이 상당수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차량부’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많이 담당해왔던 일이고, ‘당회(장로회)’, ‘교육위원회’, ‘재정위원회’, ‘기획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 교회에서 남성은 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거나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 교회운영에 관한 일을 논의하는 직분도 많이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8 귀하가 성인이 된 후 하고 싶은 사역을 모두 골라주시시오

- 1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 2 당회(장로회)
- 3 초등부 교사
- 4 중등부 부서장
- 5 해외 선교부
- 6 예배부(예배준비)
- 7 기획위원회
- 8 중등부 교사
- 9 고등부 부서장
- 10 청소관리부
- 11 미디어방송부
- 12 새가족부
- 13 고등부 교사
- 14 대학부 부서장
- 15 주방봉사부
- 16 재정위원회
- 17 교육위원회
- 18 영유아부 부서장 (부서 리더)
- 19 청년부 부서장
- 20 경조부
- 21 차량부
- 22 영유아부 교사
- 23 초등부 부서장
- 24 국내 선교부
- 25 전도부 (방문/노방 전도)

	1	2	3	4	5	6	7	8	9	10
10대 남성	30%	6%	20%	5%	9%	13%	8%	24%	5%	2%
20대 남성	17%	9%	11%	8%	10%	13%	8%	17%	7%	8%
10대 여성	22%	6%	29%	7%	6%	13%	4%	17%	5%	1%
20대 여성	17%	8%	17%	3%	15%	20%	7%	10%	3%	4%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0대 남성	11%	3%	20%	4%	3%	9%	6%	3%	6%	2%
20대 남성	19%	6%	16%	9%	7%	10%	14%	6%	14%	4%
10대 여성	14%	3%	20%	4%	3%	8%	8%	8%	8%	3%
20대 여성	17%	6%	6%	6%	3%	8%	10%	6%	8%	3%
	21	22	23	24	25					
10대 남성	11%	10%	4%	6%	8%					
20대 남성	9%	7%	7%	7%	8%					
10대 여성	3%	24%	5%	3%	9%					
20대 여성	3%	17%	3%	10%	8%					





18번 문항 분석

18번에서는 응답자에게 성인이 된 후 하고 싶은 사역을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문항을 성별로 나누어 분석할 때, 우선 10대와 20대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해온 교사, 특히 '초등부 교사'와 '영·유아부 교사'에 많이 응답하였으나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및 '예배부(예배준비)', '미디어방송부'의 일도 희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주일예배 사회, 기도, 성경봉독',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의 순서대로 많은 응답을 보이나 그 외 다양한 사역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해온 '차량부' 사역을 희망하는 10대, 20대 남성은 많지 않았다.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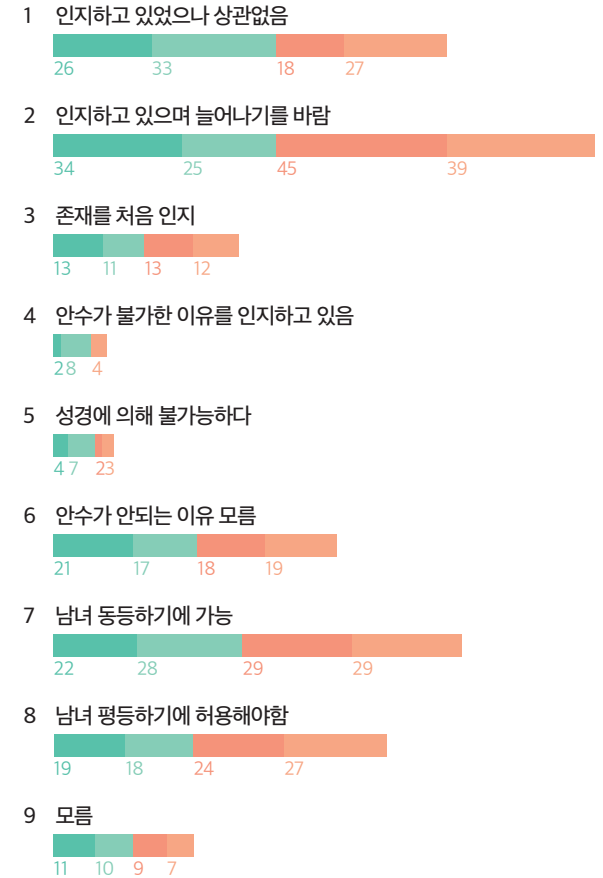
다음은 각 교단별 여성 목사 안수 허용 및 여성 목사 비율 현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교단	결의년도	여성 목사 수	비율
기독교감리회	1955년	746명	6.9%
기독교장로회	1974년	306명	10.6%
예수교장로회 통합	1994년	1,477명	8.5%
기독교 성결교	2004년	169명	3.6%
기독교 침례교	2013년	미집계	-
예수교장로회 합동	여성 목사 안수 허용하지 않음		
예수교장로회 고신			
합신			

- 1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 2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 3 여성 목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 4 여성 목사 안수를 왜 허용하지 않는지 안다
- 5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므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
- 6 여성 목사 안수를 왜 허용하지 않는지 모른다
- 7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므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
- 8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므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해야 한다
- 9 잘 모르겠다

	1	2	3	4	5
10대 남성	26%	34%	13%	2%	4%
20대 남성	33%	25%	11%	8%	7%
10대 여성	18%	45%	13%	0%	2%
20대 여성	27%	39%	12%	4%	3%

	6	7	8	9
10대 남성	21%	22%	19%	11%
20대 남성	17%	28%	18%	10%
10대 여성	18%	29%	24%	9%
20대 여성	19%	29%	27%	7%



19번 문항 분석

19번 문항은 각 교단별 여성 목사 안수 허용 여부와 여성 목사 비율을 응답자에게 제시하며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2)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여성의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뒤이어 '7)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므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와 '8)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므로 여성 목사 안수는 허용해야 한다'의 응답도 많았으나 '1)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의 응답률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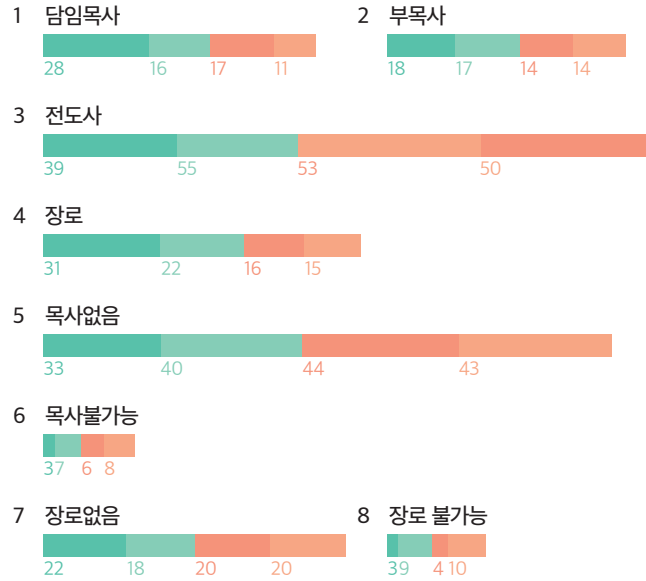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2), 7), 8)과 같이 여성 목사 비율이 늘어나고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의 기회가 부여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2), 7)과 같이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목사 비율의 증가를 많이 선택하였으나 1)처럼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흥미롭게도 '1)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와 2) '여성 목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률이 59%로 동일한 수치를 보인다.

20

귀하가 속한 교회에는 다음의 직위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습니까?
귀하의 교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중복 응답 가능)

- 1 담임 목사
- 2 부목사
- 3 전도사
- 4 장로
- 5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
- 6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 7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
- 8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

	1	2	3	4
10대 남성	28%	18%	39%	31%
20대 남성	16%	17%	55%	22%
10대 여성	17%	14%	53%	16%
20대 여성	11%	14%	50%	15%
10대	23%	16%	46%	24%
20대	13%	15%	52%	18%
남성	22%	18%	47%	27%
여성	13%	14%	51%	16%
	5	6	7	8
10대 남성	33%	3%	22%	3%
20대 남성	40%	7%	18%	9%
10대 여성	44%	6%	20%	4%
20대 여성	43%	8%	20%	10%
10대	38%	4%	21%	4%
20대	41%	7%	19%	9%
남성	36%	5%	20%	6%
여성	43%	7%	2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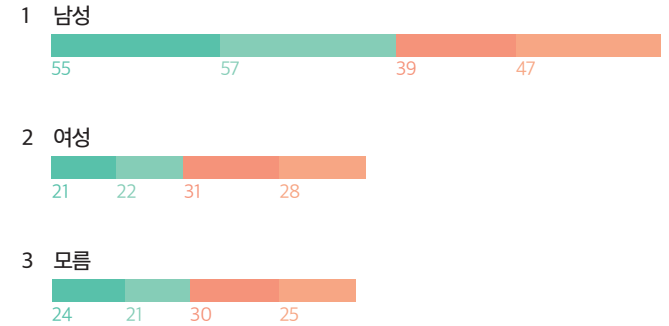
20번 문항 분석

20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회 조직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직위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성평등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5)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3) 전도사'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7)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는 없다'에 응답한 비율도 꽤 있었지만 여전히 '6)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8)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존재했다.

21 귀하가 소속된 교육부서의 (학생) 회장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1 남성
- 2 여성
- 3 잘 모르겠다

	1	2	3
10대 남성	55%	21%	24%
20대 남성	57%	22%	21%
10대 여성	39%	31%	30%
20대 여성	47%	28%	25%
10대	48%	26%	26%
20대	51%	26%	23%
남성	56%	21%	23%
여성	44%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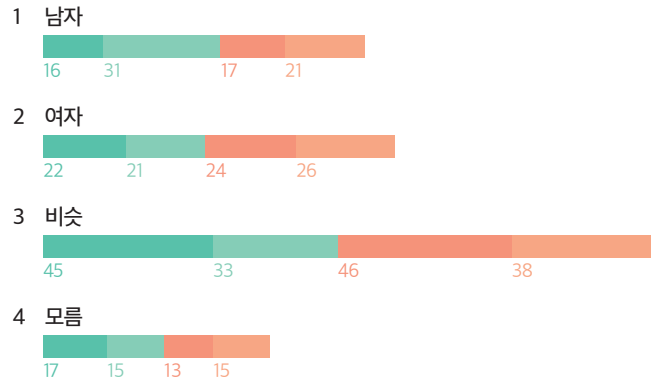


22

귀하가 소속된 교육부서의 (학생) 임원진의 남녀 성비는 어떠합니까?

- 1 남자가 많다
- 2 여자가 많다
- 3 비슷하다
- 4 잘 모르겠다

	1	2	3	4
10대 남성	16%	22%	45%	17%
20대 남성	31%	21%	33%	15%
10대 여성	17%	24%	46%	13%
20대 여성	21%	26%	38%	15%
10대	16%	23%	46%	15%
20대	25%	24%	36%	15%
남성	23%	21%	39%	17%
여성	19%	25%	41%	15%



21번 & 22번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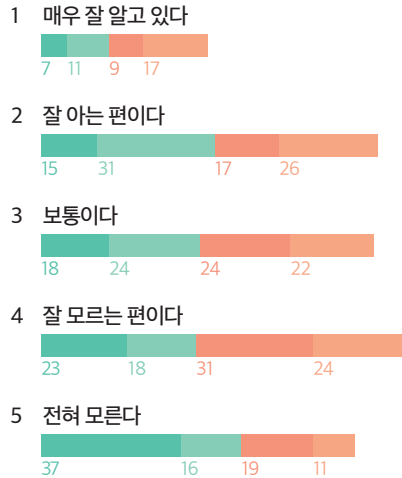
21번과 22번 문항은 내재적 교육과정 중 교육부서의 회장 및 임원진의 성비를 질문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이 속한 교육부서의 성평등 실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21번 문항에서는 회장의 성별이 '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이나 '모름'보다 가장 많았다. 반면에 22번 문항에서 전체 임원진의 성비를 질문하였을 때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원진의 성비가 비슷함에도 왜 여전히 남성이 회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교회가 많은지에 대해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

귀하는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잘 아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잘 모르는 편이다
- 5 전혀 모른다

	1	2	3	4	5
10대 남성	7%	15%	18%	23%	37%
20대 남성	11%	31%	24%	18%	16%
10대 여성	9%	17%	24%	31%	19%
20대 여성	17%	26%	22%	24%	11%
10대	8%	16%	21%	27%	28%
20대	14%	28%	22%	22%	14%
남성	9%	23%	20%	21%	27%
여성	13%	22%	23%	2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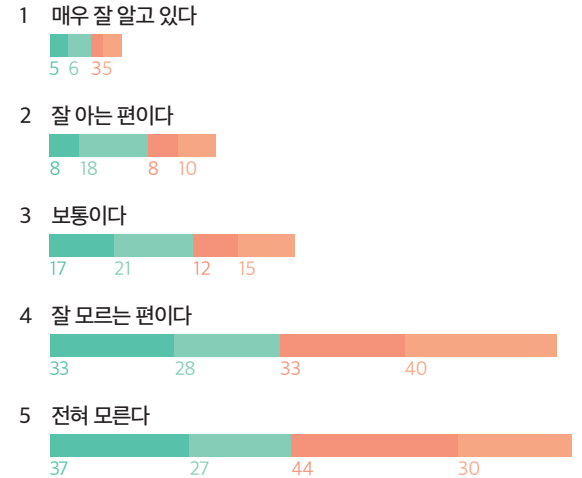


24

교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서울)" 등이 전국에 있습니까. 이를 알고 있습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다
- 2 잘 아는 편이다
- 3 보통이다
- 4 잘 모르는 편이다
- 5 전혀 모른다

	1	2	3	4	5
10대 남성	5%	8%	17%	33%	37%
20대 남성	6%	18%	21%	28%	27%
10대 여성	3%	8%	12%	33%	44%
20대 여성	5%	10%	15%	40%	30%
10대	4%	8%	15%	33%	40%
20대	5%	13%	18%	35%	29%
남성	5%	13%	19%	31%	32%
여성	4%	9%	14%	37%	36%



23번 문항 분석

23번 문항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 등 각종 성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물었다.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응답률이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잘 모르는 편이다'와 '전혀 모른다'의 응답률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보다 더 높았다.

눈여겨볼 점은 20대 남성은 한국 교회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31%)'와 '보통이다(23%)'라고 응답했으나 10대 남성은 '잘 모르는 편이다(23%)'와 '전혀 모른다(3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차이를 보였다.

24번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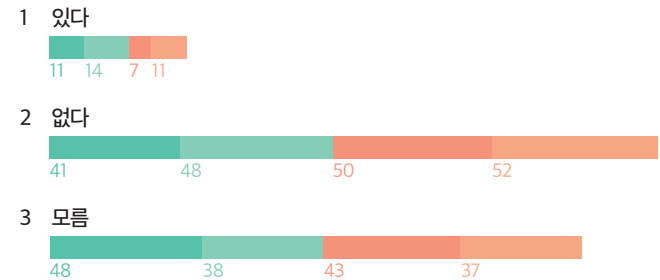
24번 문항에서는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위해서 교회 내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잘 모르는 편이다'와 '전혀 모른다'의 응답이 모든 응답자의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25

귀하의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모임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모른다

	1	2	3
10대 남성	11%	41%	48%
20대 남성	14%	48%	38%
10대 여성	7%	50%	43%
20대 여성	11%	52%	37%
10대	9%	46%	45%
20대	12%	50%	38%
남성	12%	45%	43%
여성	9%	5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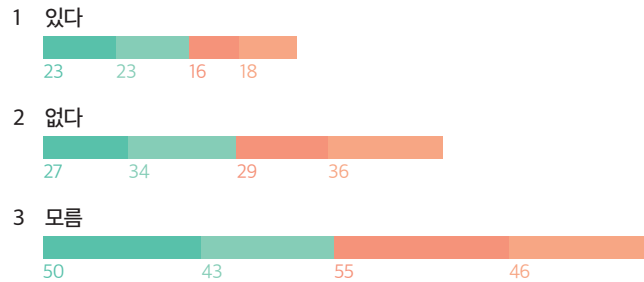


26

귀하의 교회에는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이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 3 모른다

	1	2	3
10대 남성	23%	27%	50%
20대 남성	23%	34%	43%
10대 여성	16%	29%	55%
20대 여성	18%	36%	46%
10대	20%	28%	52%
20대	21%	36%	43%
남성	23%	31%	46%
여성	17%	33%	50%



25번 & 26번 문항분석

본인이 속한 교회의 성차별을 지향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거나 가르치는 모임이 있는지를 묻는 25번 문항에서는 ‘없다’와 ‘모른다’가 응답자의 90%에 육박하여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26번 문항에서 교회 내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없다’와 ‘모른다’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있다’의 응답은 20%에 가깝거나 20%가 약간 넘는 비율을 보이며 미약하게나마 개선의 움직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영(0)의 교육과정

- ▶ 영의 교육과정과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에서 실태 부분의 차이가 명확하다. 먼저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보통이다’부터 ‘모른다’의 응답이 ‘매우 잘’ 알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없어 응답자들이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를 생소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그중에서도 성경 속 여성 리더십에 대한 가르침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되지 않으며 성경에 기록된 여성에 대한 조명도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29번 문항에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한 13명의 여성인물을 제시하였으나 ‘루디아’와 ‘율리아’를 제외하고는 ‘들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20% 미만이거나 10% 미만인 응답도 많았다. 원래는 ‘마리아’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성경에 ‘마리아’가 많기 때문에 본 질문의 의도와는 달리 응답자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마리아’는 분석에서 제외하겠다.
- ▶ 교회에서 성경 속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더라도 설교나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을 때, ‘드보라’, ‘에스더’, ‘한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홀다’를 들어 본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들이 여성선지자, 여성제자, 여성리더와 같이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여성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해석된 일부 성경구절에 대하여 성평등적 해석을 응답자들에게 제시 하였더니 응답자들은 이와 같은 해석을 ‘대체로’ 또는 ‘매우’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새로운 ‘에페르’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질문하였을 때,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나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30~40%, ‘지금까지 알던 해석과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가 9~15%의 응답을 차지하였다. 이는 여성안수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성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무관심에 대한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성평등적 해석에 대한 무관심과 이 해석이 ‘틀렸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은 한국 교회에서 제시하는 가르침이 성평등에 얼마나 무관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앞에서 명시적 교육과정과 내재적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평등적 인식에 동의하고 있거나 성경구절에 바탕을 둔 부분에서는 성평등적 인식을 하지 못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교회에서 성평등적인 가르침을 제공함으로써 성경을 성평등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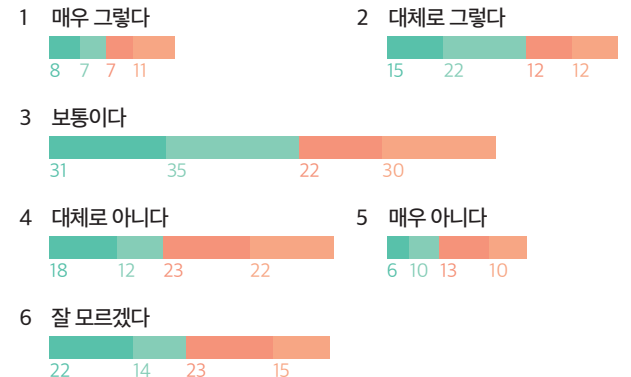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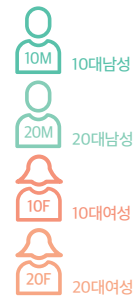
27

다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성적 이미지 특히 어머니로 묘사하는 구절의 일부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어머니 이미지가 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아니다
- 5 매우 아니다
- 6 잘 모르겠다

이사야 42: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혈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이사야 49:15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이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호세아 11:3-4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1	2	3	4	5	6
10대 남성	8%	15%	31%	18%	6%	22%
20대 남성	7%	22%	35%	12%	10%	14%
10대 여성	7%	12%	22%	23%	13%	23%
20대 여성	11%	12%	30%	22%	10%	15%



27번 문항 분석

27번 문항은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여주며 이에 대하여 배운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고,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또는 '모른다'의 응답률이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보다 높았다.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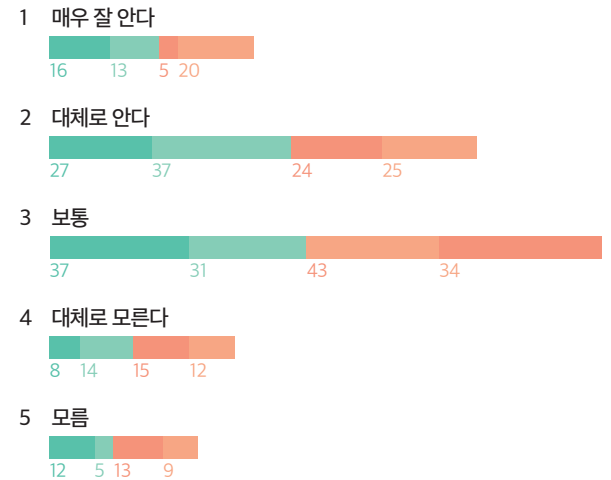
위의 성경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교백문입니다. 이 고백문에 동의하고 나서야 초대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귀하는 이 구절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

- 1 매우 잘 안다
- 2 대체로 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모른다
- 5 매우 모른다

	1	2	3	4	5
10대 남성	16%	27%	37%	8%	12%
20대 남성	13%	37%	31%	14%	5%
10대 여성	5%	24%	43%	15%	13%
20대 여성	20%	25%	34%	12%	9%
10대	11%	26%	39%	11%	13%
20대	17%	30%	33%	13%	7%
남성	15%	32%	33%	11%	9%
여성	13%	24%	39%	13%	11%

-  10대남성
-  20대남성
-  10대여성
-  20대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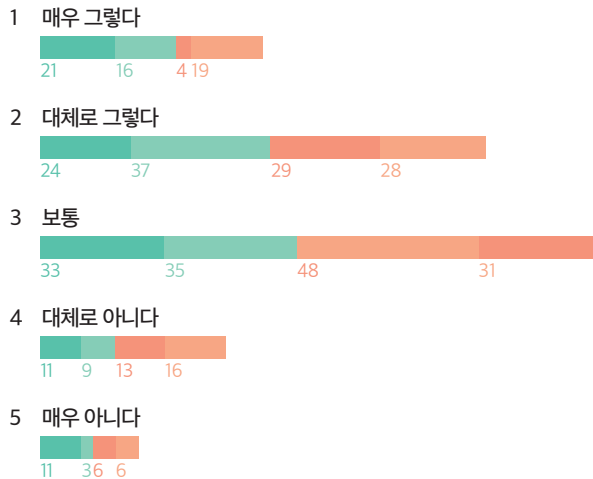
28-2

이 구절은 인종과 성별, 그리고 사회적 계급의 차별을 모두 없애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 충분히 가르쳐주었다고 생각합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아니다
- 5 매우 아니다

갈라디아서 3:28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

	1	2	3	4	5
10대 남성	21%	24%	33%	11%	11%
20대 남성	16%	37%	35%	9%	3%
10대 여성	4%	29%	48%	13%	6%
20대 여성	19%	28%	31%	16%	6%
10대	13%	26%	41%	12%	8%
20대	18%	32%	32%	13%	5%
남성	18%	30%	35%	10%	7%
여성	13%	29%	38%	14%	6%



28-1번 & 28-2번 분석

28-1번과 28-2번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고백문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그 의미를 충분히 배웠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문항이다. 28-1번에서 응답자들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보통이다'로 응답자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세례고백문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체로 알고있다'와 '매우 잘 알고있다'의 순서의 응답률을 보이며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2번에서 초대교회 세례고백문의 의미를 교회에서 얼마나 가르쳐주었는지에 대해서도 28-1번과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많은 응답자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며 교회에서 그 의미를 가르쳐주었으나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며 교회에서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배웠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더러 있었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의 세례고백문과 그 의미에 대하여 어느정도 교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어떤 상황이나 설교에서 교육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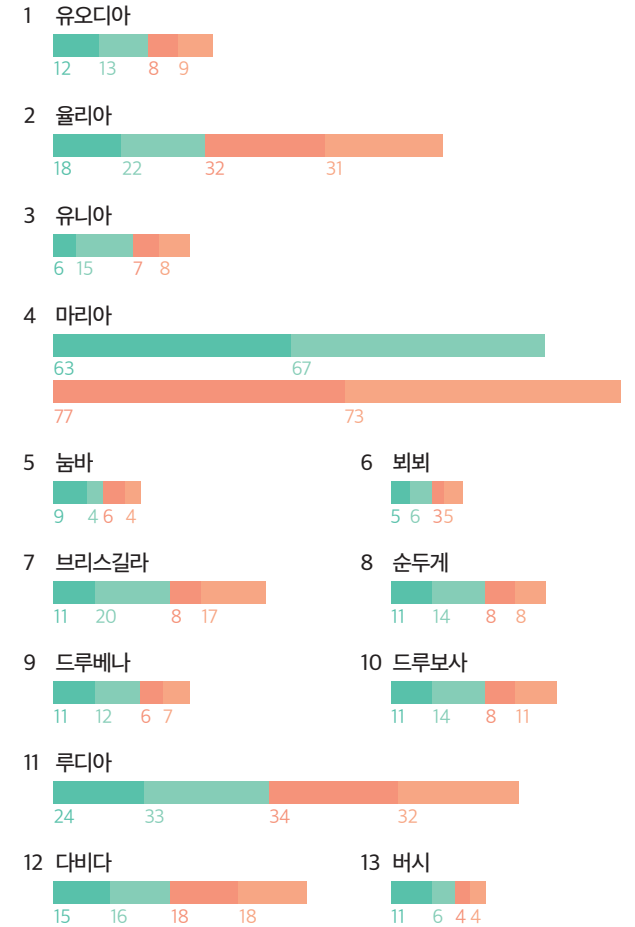
29

초대교회는 세례고백문 정신에 따라 여성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한 여성들의 이름입니다. 들어본 이름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유오디아
- 2 율리아
- 3 유니아
- 4 마리아
- 5 눔바
- 6 뵤뵤
- 7 브리스길라
- 8 순두게
- 9 드루베나
- 10 드루보사
- 11 루디아
- 12 다비다
- 13 버시

	1	2	3	4	5	6	7
10대 남성	12%	18%	6%	63%	9%	5%	11%
20대 남성	13%	22%	15%	67%	4%	6%	20%
10대 여성	8%	32%	7%	77%	6%	3%	8%
20대 여성	9%	31%	8%	73%	4%	5%	17%
10대	10%	24%	6%	70%	8%	4%	10%
20대	11%	27%	11%	71%	4%	5%	18%
남성	13%	19%	10%	65%	7%	5%	15%
여성	9%	32%	8%	75%	5%	4%	13%

	8	9	10	11	12	13
10대 남성	11%	11%	11%	24%	15%	11%
20대 남성	14%	12%	14%	33%	16%	6%
10대 여성	8%	6%	8%	34%	18%	4%
20대 여성	8%	7%	11%	32%	18%	4%
10대	9%	9%	9%	29%	16%	8%
20대	11%	9%	12%	32%	17%	5%
남성	12%	12%	12%	28%	15%	9%
여성	8%	7%	9%	33%	18%	4%



29번 문항 분석

29번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언급한 여성들을 나열하고, 응답자가 교회에서 들어본 여성의 이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을 통해 응답자들은 자신이 들어보지 못한 바울의 동역자에 ‘여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해당 사실을 교회에서 왜 들어보지 못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여성의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현저히 낮았으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은 ‘마리아’였으나 이는 응답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등 마리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질문의 의도와는 다르다. 따라서 29번에서는 설문조사 문항과는 달리 ‘마리아’ 응답을 삭제하고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루디아’가 가장 높고, ‘율리아’, ‘다비다’, ‘브리스길라’가 그 뒤를 이었으나 ‘루디아’와 ‘율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에 대하여 들어본 응답률은 20%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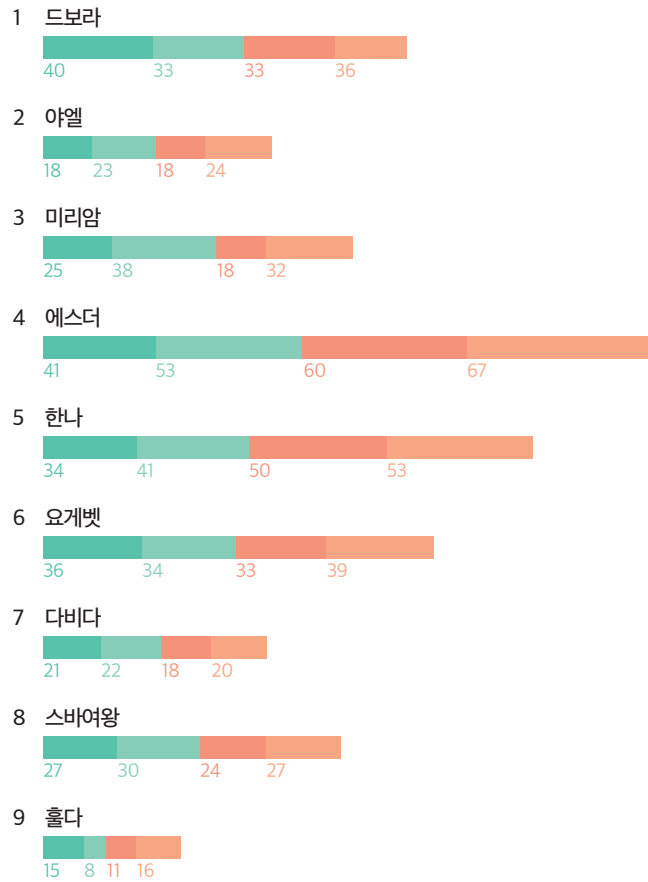
29번 문항은 한국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설교 또는 가르침을 전할 때, 성경 속 남성인물만을 비중있게 다룰 것이 아니라 여성인물도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게 한다.

30

다음 중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성경 인물이 있다면 모두 골라주십시오.

- 1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사, 드보라 (사사기)
- 2 적장의 머리를 내리쳐 나라를 지킨 야엘 (사사기)
- 3 이집트 탈출 후 공동체의 리더로 선두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미리암 (출애굽기)
- 4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에스더 (에스더)
- 5 믿음의 자세로 기도한 한나 (사무엘상)
- 6 이집트 정부의 유대인 남자가기 숙청에도 불구하고 아기 모세를 숨긴 요게벳 (출애굽기)
- 7 착한 일과 구제를 실천한 제자, 다비다 (사도행전)
- 8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배우고자 한 스바 여왕 (열왕기상)
- 9 율법을 해석하여 나라의 앞날을 통찰한 선지자, 홀다 (열왕기하)

	1	2	3	4	5	6	7	8	9
10대 남성	40%	18%	25%	41%	34%	36%	21%	27%	15%
20대 남성	33%	23%	38%	53%	41%	34%	22%	30%	8%
10대 여성	33%	18%	18%	60%	50%	33%	18%	24%	11%
20대 여성	36%	24%	32%	67%	53%	39%	20%	27%	16%
10대	37%	18%	22%	50%	42%	34%	20%	26%	13%
20대	35%	23%	35%	61%	48%	37%	21%	29%	12%
남성	37%	21%	31%	47%	38%	35%	22%	29%	12%
여성	35%	21%	26%	64%	52%	36%	19%	26%	14%



30번 문항 분석

30번 문항에서도 앞서 29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29번 문항을 통하여 한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여성인물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부재하여 이러한 가르침이 영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인물은 '에스더'와 '한나'였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에스더'와 '한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에스더'를 들어본 여성은 64%(남성 47%) '한나'를 들어본 여성은 52%(남성 38%)였다. 그 뒤로 '드보라', '요게벳' 순서로 응답률이 높았고, '홀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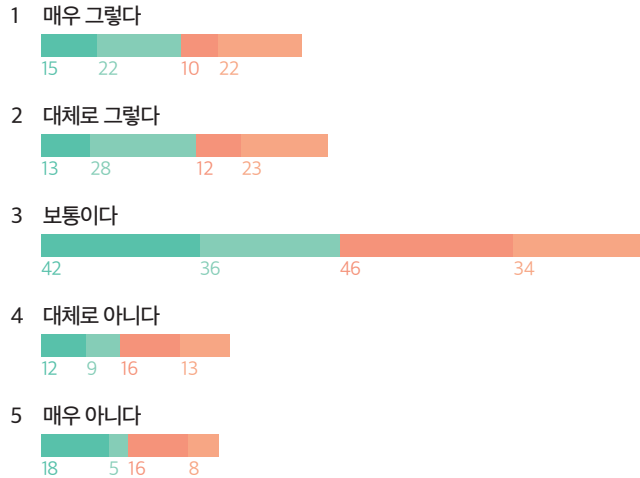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속 여성인물 '에스더'와 '한나'는 많은 경우,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왕비로서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 대제사장을 잉태하고 그를 잘 길러낸 '어머니'의 이미지로 접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처럼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특히나 여성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것은 여성들이 이미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을 내면화하였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드보라'와 같이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인물도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전체적인 응답률을 살펴보면, 여성 선지자, 여성 제자, 여성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여성인물에 대하여 들어본 바가 매우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이는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인물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31-1

남성 제자들이 모두 흩어진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부활에서도 첫 증인이 된 것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또는 배운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아니다
- 5 매우 아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15%	13%	42%	12%	18%
20대 남성	22%	28%	36%	9%	5%
10대 여성	10%	12%	46%	16%	16%
20대 여성	22%	23%	34%	13%	8%
10대	12%	12%	45%	14%	17%
20대	22%	25%	35%	11%	7%
남성	18%	20%	39%	11%	12%
여성	17%	18%	40%	1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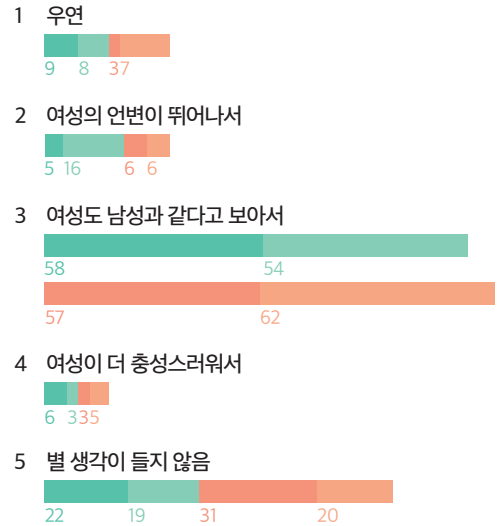


31-2

당시 여성의 지위는 법적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인구를 셀 때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우연의 일치이다
- 2 여성이 말을 잘 하고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다
- 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
- 4 여성이 남성보다 더 충성스러워서 더 사랑하셨다
- 5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10대 남성	9%	5%	58%	6%	22%
20대 남성	8%	16%	54%	3%	19%
10대 여성	3%	6%	57%	3%	31%
20대 여성	7%	6%	62%	5%	20%
10대	6%	5%	58%	5%	26%
20대	7%	10%	59%	4%	20%
남성	9%	10%	56%	5%	20%
여성	5%	6%	60%	4%	25%



31-1번 & 31-2번 문항 분석

31-1번 문항은 영 교육과정 중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증인이 된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부활의 증인이 된 여성들에 대하여 이를 알고 있거나 배운 적이 있다는 응답에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이 30~40%를 차지하였는데, 10대보다는 20대가 이를 더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아니다'와 '대체로 아니다'의 응답률은 20~30%였으며 '보통이다(들어본 적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31-2번 문항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고려할 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3)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가 모든 응답자 사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5)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의 무관심 응답도 20~30%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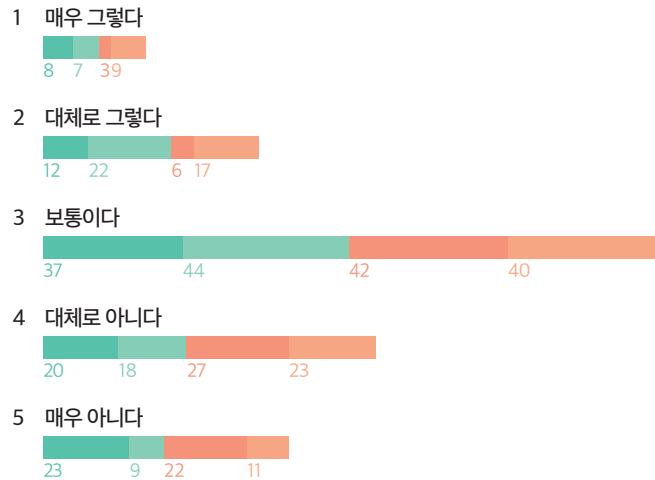
32-1
귀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아니다
- 5 매우 아니다

창세기 2:20-23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돕는 배필: 개역개정)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뺏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시편 146: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에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무엘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아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아자르)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시편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에셀르)이 어디서 올꼬.
시편 115: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에셀르)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그동안 창세기의 성경 구절은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고, 남성의 일부인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성이 주된 임무(사회적 영역) 여성은 이를 위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개인적 영역)을 맡는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셀르 케네그도'에서 '도움인' '에셀르' "עֲשֵׂר"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인 단어로, '에셀르 케네그도'는 '꼭 맞는 도움', '그의 마주봄 같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갈빗대를 나눈 것은 깊고 평등한 연대성을 의미합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8%	12%	37%	20%	23%
20대 남성	7%	22%	44%	18%	9%
10대 여성	3%	6%	42%	27%	22%
20대 여성	9%	17%	40%	23%	11%
10대	6%	9%	40%	23%	22%
20대	8%	19%	42%	21%	10%
남성	8%	17%	40%	19%	16%
여성	7%	12%	40%	2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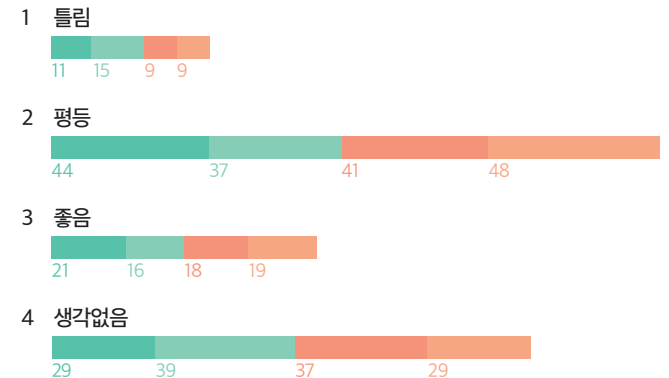


32-2 위의 해석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
- 2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 3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
- 4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10대 남성	11%	44%	21%	29%
20대 남성	15%	37%	16%	39%
10대 여성	9%	41%	18%	37%
20대 여성	9%	48%	19%	29%
10대	10%	42%	20%	33%
20대	11%	44%	18%	33%
남성	13%	40%	18%	34%
여성	9%	45%	19%	32%



32-1번 & 32-2번 문항 분석

32-1번 문항은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을 제시하고, 32-2번 문항에서 이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에페르 해석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았거나 배운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의 응답률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 점을 미루어볼 때,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인 해석을 들어보거나 배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2-2번 문항에서는 인간 창조에 대한 성평등적 해석에 대하여 ‘2)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에 ‘4) 별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무관심 응답도 30~4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새로운 해석이 ‘1) 틀렸다’는 응답보다는 새로운 해석이 ‘3)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에 응답한 약 10%가량의 응답자 중 20대 남성이 1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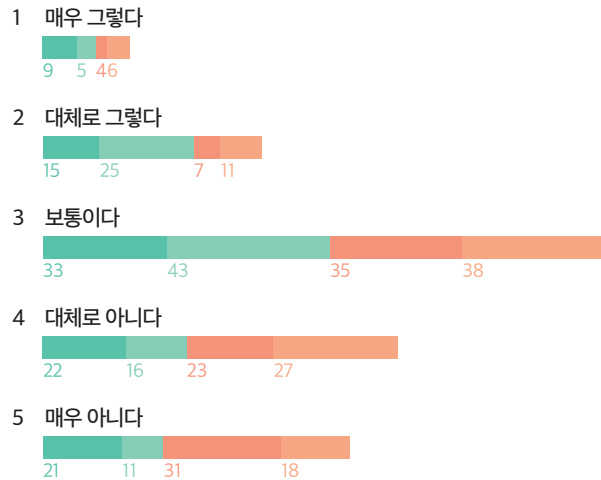
33-1 귀하는 이와 같은 해석을 들어보았거나 배운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아니다
- 5 매우 아니다

고린도전서 14:34-35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십시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11-15	여자는 조용히, 아주 순종하면서 배우십시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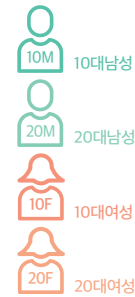
위의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여성은 안수를 받아 장로 또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교단이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이 안수를 받아 장로 또는 목사가 될 수 없는 교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 성도들, 특히 가정을 이룬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일으킨 분쟁과 예배의 무질서를 경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울은 여성 전체가 아닌 결혼한 여성에 한정해서 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결혼한 여성에게 조용히 배우라고 권합니다. 이는 남편을 가르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일부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여성 전체로 일반화하여 여성에게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명령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본문에는 남성을 가르치고 지도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고, 바울의 동역자인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	2	3	4	5
10대 남성	9%	15%	33%	22%	21%
20대 남성	5%	25%	43%	16%	11%
10대 여성	4%	7%	35%	23%	31%
20대 여성	6%	11%	38%	27%	18%
10대	7%	11%	34%	22%	26%
20대	6%	17%	39%	23%	15%
남성	7%	19%	39%	19%	16%
여성	5%	9%	37%	2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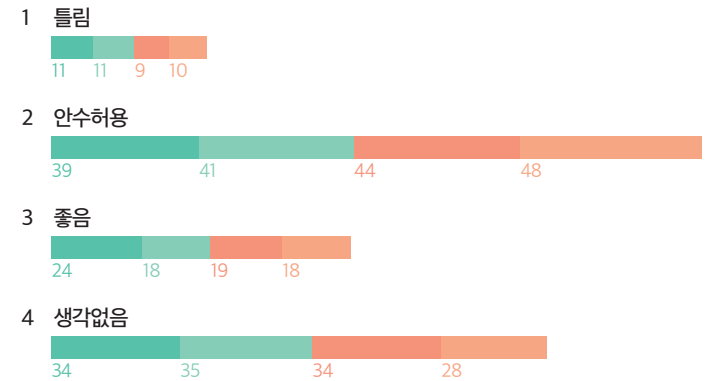


33-2 위의 해석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 응답 가능)

-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
- 2 처음 들어보지만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 3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
- 4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10대 남성	11%	39%	24%	34%
20대 남성	11%	41%	18%	35%
10대 여성	9%	44%	19%	34%
20대 여성	10%	48%	18%	28%
10대	10%	41%	22%	34%
20대	10%	45%	18%	31%
남성	11%	40%	21%	34%
여성	9%	46%	18%	31%



33-1번 & 33-2번
문항 분석

33-1문항에서는 여성 안수에 대한 성평등 해석을 제시하고, 33-2번 문항에서 성평등적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살펴 보았다. 33-1번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 대신에 당시의 시대문화적 배경을 통한 해석도 함께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에게 교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어보거나 배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들어본 적은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체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의 응답률이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보다 더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33-2번 문항에서는 성평등적인 해석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2) 처음 들어보지만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의 응답률이 10대와 20대 남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의 응답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미루어볼 때, 성평등적인 해석에 대한 무관심이 관찰되는 것인지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1)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 집단별로 약 10%를 차지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5) 응답자 인적사항

- ▶ 34번 문항에서는 앞서 2번 문항에서 물었던 것과 동일하게 한국 교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응답자들의 한국 교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평등' 또는 '보통이다'에서 '대체로 평등하지 않다'로 많이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에 대한 본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 35번 문항부터 38번 문항은 응답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담당 교육부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신앙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상당수의 응답자는 담임 목사님이나 본인이 출석하는 교육부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신뢰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해석이라면 신도들이 수용하는 성경해석이나 성평등적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앙심이 '매우 강하다' 또는 '강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을 따로 변인으로 떼어서 해당 집단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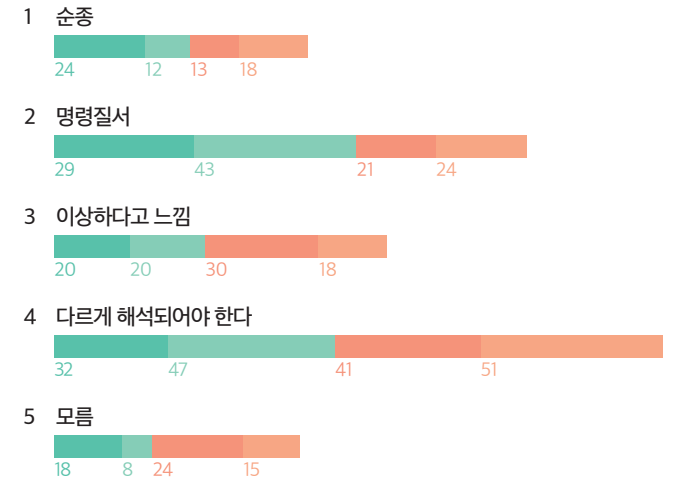
3. 강한 신앙심 집단 응답 결과 분석

지금까지 10대 남성, 10대 여성, 20대 남성, 20대 여성으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의 설문조사 응답을 살펴보았다. 보다 분석적인 성찰을 위하여 2차 집단을 모태 신앙 및 교회 연한 7년 이상으로, 3차 집단을 본인의 신앙심이 강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차 집단과 1차 집단의 그래프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한 3차 집단과 1, 2차 집단의 그래프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강한 신앙심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한 10대 남성 중 한국 교회에 성차별이 심각하지 않고 '매우 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한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평등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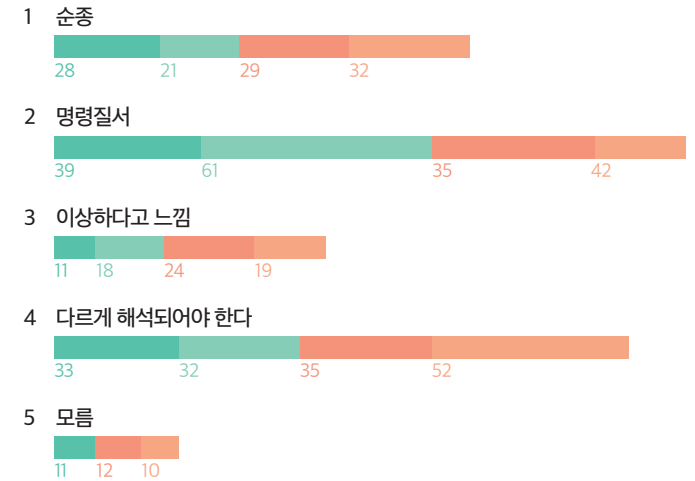
1) 명시적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3번~11번 문항)

- ▶ 명시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3번~11번) 중 한국 교회의 성차별적 가르침의 실태를 나타내는 각 문항별-1번에서는 신앙심 강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각 문항에서 제시한 가르침을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을 묻는 각 문항별-2번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매우 동의한다'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의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교회의 성차별적 가르침을 많이 들어보았으나 이에 동의함으로써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부장적 성경해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인식을 나타내는 각 문항별-2번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
- ▶ 3번 문항에서 제시한 성경구절은 한국 교회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경구절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가르침에 상당수의 응답자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에 응답하였는데, 10대 남성은 39%, 20대 남성은 61%로 다섯 가지 문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0대 여성은 35%, 20대 여성은 42%로 적지 않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1020세대의 남녀 응답자의 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더 두드러지는 수치이다.

전체



신앙심 (매우 강하다 + 강한 편이다)



- ▶ 남편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4번 문항과 여성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5번 문항 그리고 자녀출산을 강조하는 6번 문항에서 제시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의 응답률은 전체 응답자의 '동의한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에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률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강한 신앙심을 가진 집단 여성들의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 ▶ 반면에 7번 문항에서 제시한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강한 신앙심 집단 역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태 신앙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적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매우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확연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앙심이 강하다고 응답할수록,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성경구절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 ▶ 여성에게 헌신과 보살핌을 강조하며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8번 문항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많이' 들어보았고, '가끔' 들어보았으며 이 가르침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확연히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의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총 22%로 78%나 되는 20대 남성이 이 가르침에 어느 정도 동의하거나 보통이라고 밝혔다. 10대 남성도 33%를 제외한 67%가량의 남성이 이 가르침에 동의하거나 보통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 ▶ 여성의 덕목으로 순종을 강조하는 9번 문항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 중 20대 남성의 74%가 이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20대 남성의 56%가 이 가르침을 들어보았다고 한 것보다 약 20%나 많은 수치이다. 더군다나 20대 남성의 응답률은 신앙심이 강한 10대 남성의 31%가 여성의 순종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20대 남성이 이 가르침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신앙심이 강한 여성은 10대가 41%, 20대가 32%가량 여성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가르침을 들어보았다고 답하며 다른 집단의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 또 해당 가르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매우'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대 남성의 55%, 10대 남성의 33%가 이에 동의하였다. 대체로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더라도 여성의 '비동의' 비율이 더 높았고 남성의 '동의' 또는 '보통'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한국 교회가 여성들에게 가부장적 질서와 결합한 교회 규범과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세대의 젊은 여성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여성의 인식과 교회에서의 가르침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1020세대의 젊은 남성들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있어 한국 교회 안에 젊은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 10번 문항에서 '그리스도인 여자는 정숙하고 현숙한 여자이다. 늘 몸가짐과 옷차림을 조심하고 순결하고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와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는 다른 집단의 응답과 비교해 볼 때, 가르침이 행해지는 현실을 반영했다기보다 이를 기억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와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이 '보통', '대체로' 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응답이 상당수였던 것과 달리, '대체로 동의한다', '보통',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다른 집단과는 다른 그래프 분포를 보였다. 다른 집단에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해당 부분이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 ▶ 여성이 남성을 죄에 빠뜨리는 유혹의 담지자이므로 여성이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11번 문항의 응답 결과 역시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많이' 그리고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하며 해당 가르침을 교회에서 익숙하게 접했음을 드러내준다. 이 가르침에는 다른 집단의 응답 분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남성들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여성들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의 남성들이 '매우 동의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한국 교회의 성평등을 실현해 나아가갈 미래에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내재적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그러나 내재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12번~28번)에서는 앞서 보인 응답 결과와는 조금 다른 응답 결과를 보인다. 12번 문항에서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어린이용 대변기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 및 다른 모든 집단이 ‘둘 다 필요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성경적 가르침과 일반 사회 환경을 구분하는 듯하다. 즉,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종교적 인식과는 달리 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 성평등 환경 부분에서는 강한 신앙심 집단,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 전체 응답자의 응답률이 큰 차이가 없다.

- ▶ 자모실의 명칭에 대한 13번 문항에서도 세 집단 모두 ‘변경하는 것이 좋다(문제가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10대 여성이 82%의 응답률을 기록하며 ‘문제가 있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문제가 없다’에는 20대 남성이 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응답했다. 10대 남성에 비하여 20대 남성이 오히려 자모실 명칭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자녀 양육이 곧 닥칠 미래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또는 10대와 20대 남성 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분담 인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 ▶ 14번 문항의 교회 건축물 명칭에 성경 속 여성 인물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10대와 20대 남녀 모두가 ‘여성의 이름도 넣어서 지어야 한다’에 가장 많이 답했다. 이는 교회연한이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에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는 다른 양상의 응답 분포이다. 이를 통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교회 환경 및 건축물과 같은 생활환경 부분에서는 성평등적 인식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 ▶ 공과 공부 교재 삽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15번 문항에서도 명시적 교육과정의 가부장적 성경 해석과는 달리 교재 삽화나 건축물 또는 교회 환경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다지 가부장적인 면모가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미루어볼 때, 한국 교회의 성평등 문제에서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경해석을 하나님의 명령이자 질서 또는 진리로 전달하는 체계와 가르침을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16번, 17번 문항의 여성 및 남성이 담당하는 사역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므로 자세히 분석하지 않겠다. 다만 18번 문항에서 성인이 된 후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에 대하여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다른 집단보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서 한국 교회의 미래에 이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을 미

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특별히 18번 문항에서는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여성들도 주일예배 준비 및 예배준비부, 각종 부서의 부서장, 재정위원회 등의 사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6번, 17번 문항에서 살펴보면 해당 사역은 남성이 더 많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들이 교회 내 사역 담당 성비의 불균형을 체감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성평등적 인식에 바탕을 둔 신앙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 ▶ 19번 문항에서는 여성 목사 비율과 여성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신앙심 강한 집단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태신앙의 집단에서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생각보다 여성 목사 비율이 적다는 것을 알았지만 별 상관하지 않는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회 내 성평등 또는 여성 목사 할당 부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관심도가 낮다고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성경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므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응답도 강한 신앙심을 가진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대 남성의 21%가 여성 목사 안수 불가에 동의하며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 목사의 활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 20번 문항 또한 교회 내 조직 구성원 성비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겠다. 21번 문항과 22번 문항 역시 교육부서의 (학생) 회장 성별 및 (학생) 임원진의 남녀 성비를 묻는 실태조사에 해당하므로 분석하지 않겠다.
- ▶ 흥미로운 점은 23번 문항에서부터 24번 문항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의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다른 두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또는 ‘잘 아는 편이다’에 많이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아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 점은 신앙심이 강한 만큼 교회 문제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 마찬가지로 25번 문항에서 교회 안에서 성차별을 지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는 논의를 하거나 이를 가르치는 모임의 존재 여부와 26번 문항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의사소통 과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더 적극적으로 ‘있다’ 또는 ‘없다’에 응답하였고, ‘모른다’의 응답이 가장 적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교회 문제뿐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교육 시스템 및 의사소통 과정에도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영(0) 교육과정 응답 결과 분석

신앙심 강한 집단의 영 교육과정에 관한 문항(29번~33번)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9번 문항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에 관한 성경구절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이에 대하여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10대 여성과 20대 여성이 많았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것과 관련하여 ‘모른다’의 응답률은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 ▶ 28-1번 문항에서 초대 교회의 세례교백문에 대하여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매우’ 잘 알고 있거나 ‘대체로’ 아는 편인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을 보면 신앙심이 강하다고 할수록 성경 말씀 및 교회 가르침에 대하여 확실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28-2번 문항에서 신앙심이 강하다고 하는 집단의 응답자들은 교회에서 초대 교회의 세례교백문을 충분히 가르쳐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 ▶ 그러나 29번 문항과 30번 문항에서 교회에서 들어본 성경 속 여성 인물을 꼽아보도록 했을 때,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률 분포 역시 다른 집단의 응답률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신앙심이 강하다고 할수록 다른 집단보다 성경 여성 인물에 대하여 들어본 비율이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한나, 에스더와 같이 교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여성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인물에 대하여 들어본 응답률의 분포가 다른 집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응답자들의 응답률이 곧 한국 교회의 가르침에 반영된 성경 속 여성 인물의 언급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 ▶ 31-1번 문항에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인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31-2번 문항에서 이 가르침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신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많았으나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거나 ‘여성이 말을 잘 하고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별 생각이 들지 않는다’의 응답률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적은 것을 미루어볼 때, 상당수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부활의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반면, 일부 응답자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 ▶ 32번 문항에서는 응답자들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성경구절인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한

국 교회의 가르침 실태와 이 해석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물었다. 32-1번 문항에서 신앙심이 강한 집단은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성경구절인 해석에 대하여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라고 한 응답이 다른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처음 들어보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또는 ‘평소에 알던 해석이 이해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 해석이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의 응답률도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한국 교회에서 제시하는 성경해석의 가르침에 따른 결과이며 응답자들의 성경 등 의식에 관한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 ▶ 33번 문항에서도 신앙심이 강하다고 하는 응답자들에게 ‘여성은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는 성경구절에 대하여 성경구절인 해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실태와 응답자들의 인식을 물었다.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응답자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다고 응답했으나 ‘지금까지 들어온 해석과 너무 달라서 틀린 해석인 것 같다’는 응답률이 다른 집단의 응답률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안수를 허용’할 수 있거나 ‘더 맞고 좋은 해석인 것 같다’라는 응답도 다른 집단과 유사한 정도를 보였고, 이 해석에 대하여 절반가량의 10대 남성과 20대 남성이 여성의 목사 안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지금까지 신앙심 강한 집단의 명시적 교육과정, 내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영 교육과정 응답 결과를 살펴보았다. 앞서 설문조사를 마친 후, 연구진은 34번 문항을 통해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게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한 번 더 질문함으로써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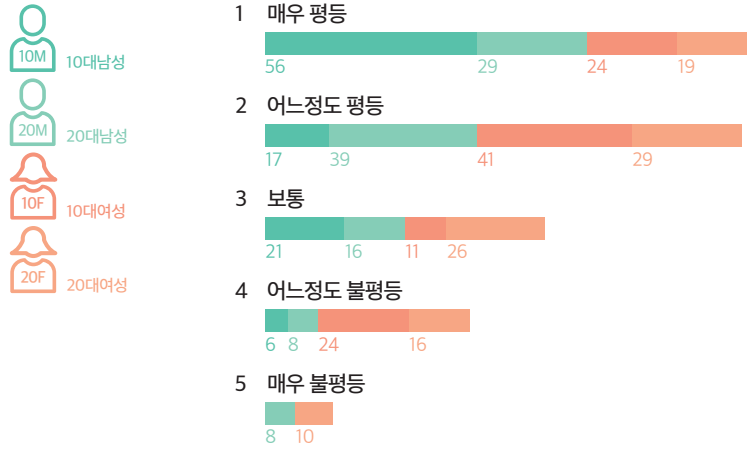
- ▶ 2번 문항의 질문에서 상당수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이 한국 교회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평등하다고 응답했던 것과 달리 34번 문항에서는 ‘매우’ 평등하다는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고, ‘어느 정도’ 불평등하다는 수치가 약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매우’ 평등하다고 응답했던 56%의 10대 남성이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34번 문항에서는 33%만이 ‘매우 평등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어느 정도 평등’하거나 ‘어느 정도 불평등’하다는 응답으로 이동한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34번 문항의 응답률을 전체 응답자 및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과 비교하면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는 여전히 한국 교회가 ‘평등’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2번 문항과 34번 문항에서의 ‘매우 평등’에 대한 응답률의 변화를 살펴본다면 본 설문조사의 교육적 효과가 다른 집단뿐 아니라 강한 신앙심을

지난 집단의 가장 완고했던 10대 남성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암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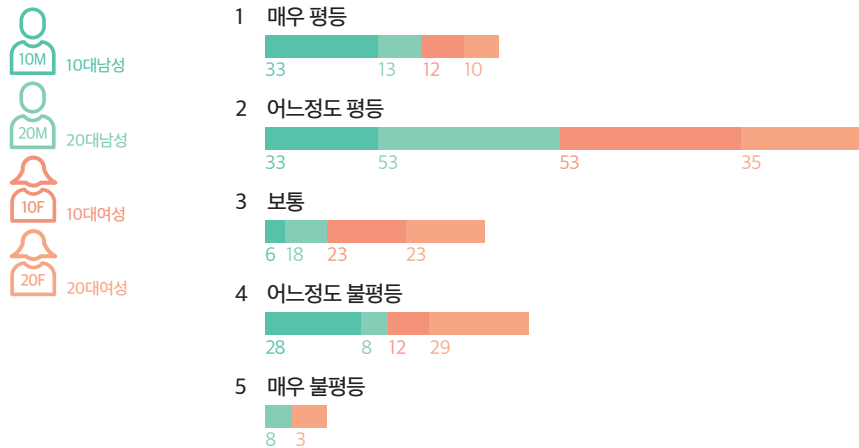
- ▶ 신앙심이 강한 집단에서 더 나아가 담임 목사와 담당 교육부서 목회자의 성경해석을 신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응답 결과를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작업에 대한 확대 연구도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앙심 (매우 강하다 + 강한 편이다)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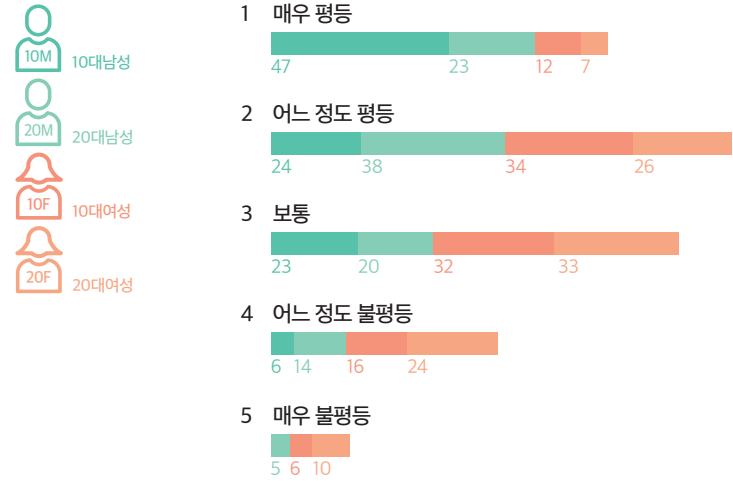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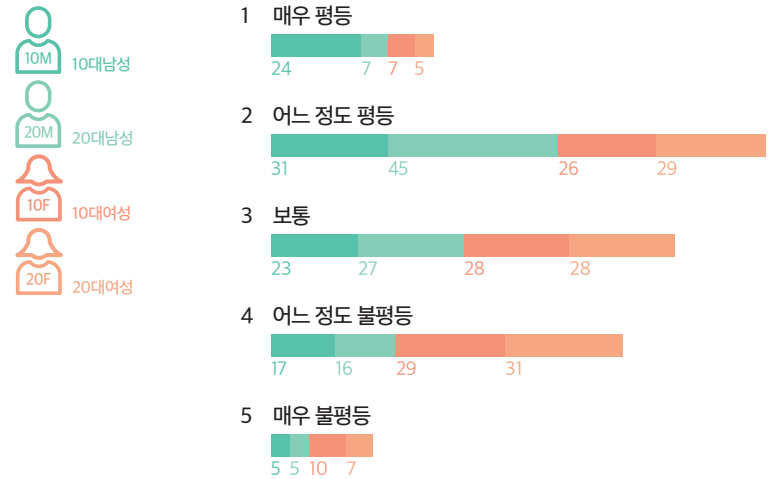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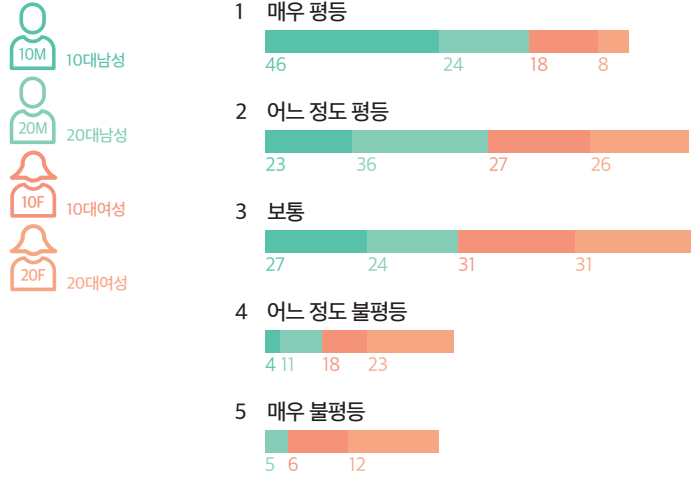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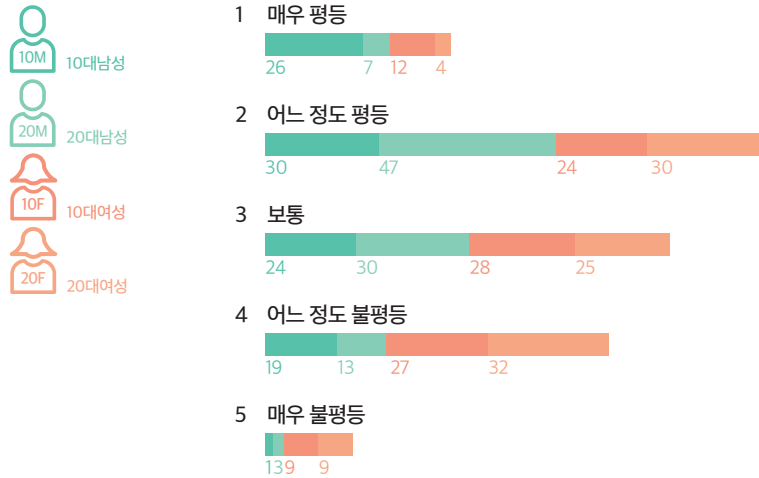


교회연한 (7년이상~모태신앙)

2.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4. 귀하는 한국 교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정성적 연구 : 집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결과 분석

1) 집담회 결과 분석 요약

정량적 연구인 설문조사를 완료한 후 정량적 연구에서 미처 조사하지 못한 또는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하여 정성적 연구인 집담회를 10대, 20대, 그리고 교회학교 부모 및 교사로 세 차례 실시하였다. 10대 집담회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대 집담회 결과

20대보다 낮은 성평등 인식과 개인적 경험에의 몰두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10대의 성평등 인식 또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 등이 20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이다. 10대들은 전반적으로 성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사회나 교회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서로가 돕고 살면 되지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차별 인식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성차별 내지는 성평등을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또는 개교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인적 경험이 없는 경우, 성차별 주제 자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았다. 단 10대 여성의 경우,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학교와 교회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성별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은 합창단인데도 뒤에서 댄스만 하라고 하는 식의 명시적인 차별이 있기도 하였다.

기성세대 및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거부 반응

또한 10대들은 기성세대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쉬움 또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10대의 가장 큰 주제인 직업 및 대학의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하며 또한 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인 20대에서는 10대보다 성평등 인식이 보다 향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집담회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대 집담회 결과

목회 현장 및 교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차별 관행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 분업에 대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목회 현장에서도 여성 목회자가 받는 차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단에 따라 '여성이 인도하는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되었다. 청년부의 경우에도 주체적 리더 역할을 남성이 하고 보조적 리더는 여성이 하는 부분이 존재하여, 여성주의 성평등 인식을 배운 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기독교 인으로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담론과 교육에서 자녀 양육을 여성의 우선적 의무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뿌리박고 있는 교회 현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통제

청년 여성에 대한 신체적 통제 억압이 행해지고 있으며, 외모에 대한 평가 발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독교 대학연합 동아리 연례 수련회에 청년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장문의 매뉴얼(민소매, 반바지, 악세사리, 화장, 붉은 입술 등을 규제하는)이 알람장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신체적 억압과 통제가 마치 강한 신앙심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등가적 가치가 되는 교회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교회 환경 등 내재적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성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시작

기관, 기구 또는 교실의 명칭 등에 성경 속 남성의 이름을 주로 붙이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 여성은 에스더, 한나, 마리아 같은 여성의 이름들이 없거나, 있어도 주로 여전도회에만 이러한 성경 속 여성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는 중고등부나 청년부

는 남성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여성의 롤모델로는 여성만 제시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니엘 여전도회가 될 수도 있고 에스더 청년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여성의 롤모델은 여성이 되는데 인간의 롤모델은 남자가 되는' 교회의 현장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과 도입에 대한 필요성 제기

성경 속 여성들을 조금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집담회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 내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회 구성원에는 여성이 훨씬 더 많기에 그런 여성들을 더욱더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집담회가 있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 집담회 결과

성별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교육 부서의 교사 및 목회자 성별 현황

가장 먼저 보고가 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이 교회학교 교사 및 목회자의 성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등부 교사나 목회자는 남성이, 초등부 및 영유아부, 유치부 등은 여성이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교회 관행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육은 여성, 교육은 남성으로 구분짓는 듯한 현재의 관행은 교육적으로도 양성이 모두 관여해야 한다는 이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성별 고정관념을 지속하고 공고히 하는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교회 문화 변화의 필요성 제기

교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행 전체를 성평등 인식을 통해 바라보고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헌금을 할 경우, 남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은 괄호 안에 넣는 것, 새구성원이 등록을 할 때 젊은 여성 집사님이 꽃을 증정하는 것 등이 지적되었다. 단, 교회에서

성평등 또는 성인지 감수성 등의 문제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제들에 대한 역할이 존재한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자모실 등의 성불평등한 교회 환경(명칭)에 대한 질문에서는 가족예배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대안적인 문화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내재적 교육과정인 교회 환경과 관련하여 교회의 여자 화장실에만 걸레통이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머니만 담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교사가 관찰하는 기독교인의 신앙 양육이 주로 어머니의 몫으로 돌려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를 못 하는 상황에서 교회 교사에게 학생들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그 이외의 신앙교육 등이 여성에게만 주로 맡겨진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양육과 교육은 부부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또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통적인 신앙교육 개념에 대한 재조명과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성경적 여성리더십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의 필요성 제기

교회학교 교사 및 부모 집단에서는 성경 속 여성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중등부 학생이 성경 속 여성리더는 없는지 질문을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요청이 부모 측에서도 나왔다. 부모 입장에서 교회 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하고 있어서 딸이 여성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보조적인 존재로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교회 교육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한 발굴이나 조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리더나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에 서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종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에스더, 마리아, 한나 등에 대한 재해석과 드보라와 훌다 등 적극적 여성리더십을 보인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진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여성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능한 많이 도입되어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리더십에 대한 롤모델을 찾고, 교회 리

더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에스더의 경우 순종 보다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스더의 이야기는 개항기 및 민족운동 시기에 미션스쿨 여학생들에게 많이 공유가 되며 롤모델로서의 기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회 현장에서는 에스더가 가부장제 안에서 삼촌인 모르드개에게 순종을 한 모델로만 조명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여성리더십에서 가장 소외되는 성경 속 여성은 훌다이다. 훌다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인데, 드보라나 훌다와 같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한 성경 속 여성에 대한 설교나 교육이 거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성경 속 여성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여성신학적 성경해석(성평등적 성경해석) 및 성경적 여성 리더십의 적극적인 개발과 재개념화, 그리고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이 성평등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것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2) 전문가 간담회 결과 분석 요약

전문가 간담회

참여자
강호숙
(기독교인문학연구원 박사)
나연수
(은현교회 목사)
방인성
(기독교반성목력센터 공동대표)
장근지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연구원)
채송희
(예장통합목사)

남성목사 중심적 교회 구조와 이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의 수정의 필요성

10대 20대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방인성 목사와 나연수 목사는 교회 구조가 남성목사 중심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나연수 목사는 목회자 우선으로 보다 성평등적 인식, 성차별의 대한 문제 인식 등에 대한 재교육과 담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방인성 목사도 일반 환경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교회 환경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남성중심 목회자들의 신학적 비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경을 시대의 흐름 및 문화와 함께 보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온건한 가부장제를 넘어서 진정한 성평등 인식으로 나아가야 함의 필요성 대두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나 어린이 대변기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석과는 달리 장근지 연구원은 온건한 가부장제의 치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과거의 지극히 성차별적 설교들은 많이 제거되었지만 기능적으로는 아직도 위계를 두는' 교회 현장 부분과 일치한다.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상황에 대한 시각을 일깨워주는 성평등 담론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설문조사의 2번과 34번 문항 응답률 이동을 언급하며 전반적 교회 환경 및 문화 등에 대한 점검과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불평등의 감각을 일깨워주고, 균형적 시각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자신의 경험 즉 자신이 속한 개교회의 경험에만 몰두하기 쉬운 청년들에게 보다 넓은 한국 교회 일반을 보여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한다면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담론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대적 과제

강호숙 박사는 여성과 남성이 대화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방인성 목사는 신앙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음과 성평등 또한 그러한 관계성 안에서 보아야 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근지 연구원은 교회의 성평등을 위해서는 그동안 성차별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라고 이야기되어 왔던 프레임을 차용하여 성평등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채송희 목사는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나 성별영향평가 등의 여러 지침들을 교회가 역유입하여 이것을 배우고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합리성과 종교적 합리성의

대화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나연수 목사는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교회가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강하게 절감함을 이야기하였다.

총론

총론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담론을 적극 교육하고 목회자와 청년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러한 문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모두가 동의하였다.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목회적 언어 사용과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재개념화, 신앙의 재개념화 등의 이야기들이 제시되었다. 또한 하나의 목소리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자유롭게 오가는 교회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교회의 다양한 환경과 건축물, 교재 등 모든 것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해석, 대안적인 시각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국 교회 성평등 문제는 여성에 의한 남성의 역차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울려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널리 확산하여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평등 또는 역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이 시급하다.

V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일반 집단 안에서의 남녀와 연령대의 차이, 일반 집단과 강한 신앙심 집단 사이의 차이, 세 차례의 집담회 및 전문가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공통되는 내용과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 교회 성평등 실태

▶ 성경 본문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의 지속과 일부 강조점의 시대적 이동

남성중심적인 성경 본문 및 해석이 한국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번까지의 문항은 1) 실태 2)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번부터 11번에서 제시한 성경해석과 가르침이 모두 교회 현장에서 강조되며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강조점의 이동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3번 문항) 등의 성경구절들이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관여하는 전형적인 가르침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구절이 이전처럼 큰 강조점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번을 살펴보면 여성은 가정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가정 담론도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단, 성별 위계 인식에 대한 강조점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4-1번의 가정의 위계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의 42%, 20대의 56%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48%, 여성은 51%로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가정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가르침을 많이 또는 가끔 배우고 있었다. 이는 교회가 변화한 사회체제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적 위계가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성별 고정관념과 성별 분업 체계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 및 성별 분업에 대한 불편함과 부

당함을 지적하였고, 특히 목회 현장에서 여성 목회자가 받는 차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교회 부서 및 교회 내에서 여성에게 주어지는 보조적 위치와 청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통제가 신앙과 등가적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음이 비판되었다.

▶ 하나님의 여성 이미지, 성평등적 해석 및 성경 속 여성 리더십에 대한 교육의 부재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 성경 속 여성 리더십, 성평등적 해석 등에 대한 질문에서 ‘모른다(대체로/ 매우)’의 응답이 ‘매우 잘’ 알거나 ‘대체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높았다. 또한 교회에서 성경 속 여성을 가르치더라도 설교나 강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 기도, 인내와 같은 덕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설교나 강의에서 접한 여성인물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을 때(마리아 제외), ‘드보라’, ‘에스터’, ‘한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으며 ‘홀다’를 들은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응답자들이 여성선지자, 여성제자, 여성리더와 같이 다양한 여성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여성인물을 발굴하여 소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성평등 인식의 이원화

성경 본문과 그 가르침에 대한 명시적 교육과정 부분보다 내재적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교환대 및 어린이 대변기 설치, 자모실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 건축물의 명칭, 남성인물 중심적 삽화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하는 응답이 ‘문제없음/ 잘 모르겠다’보다 높았다. 이는 한국 교회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에서 신앙생활과 실제 생활의 이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교회에서 배우는 성별 고정관념과 이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가부장적 성경해석의 종교적 인식과는 달리 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반 성평등 환경 부분에서는 강한 신앙심 집단, 7년 이상-모태신앙 집단, 전체 응답자의 응답률에 큰 차이가 없다. 기독교인은 한국 교회와 사회에 동시에 속하며 행위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성별 고정관념의 이원화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일정 정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된다.

▶ 교회 환경, 교재, 조직 기구 등에 대한 성평등적 관심의 필요

교회 조직 실태에 대한 조사는 선행연구 조사와 일치하게 여전히 중요한 직위 및 조직기구가

남성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시적 교육과정 못지않게 내재적 교육과정이 성별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설교 및 가르침 외에 특히 제도적인 면에서의 여성리더십의 확대와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18번 문항에서는 신앙심이 강한 집단의 여성들도 주일예배 준비 및 예배준비부, 각종 부서의 부서장, 재정위원회 등의 사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6번, 17번 문항에서 살펴보듯 해당 사역은 남성이 더 많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들이 교회 내 사역 담당 성비의 불균형을 체감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 교회 내 성차별 및 성폭력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상당히 부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 또는 의사소통 과정이 구축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교회의 성차별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2) 한국 교회 성평등에 대한 인식

▶ 한국 사회와 교회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남녀 모두 2번 문항에서 한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성평등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설문조사 말미에 나온 동일한 질문 34번에서는 교회의 불평등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성평등이라는 것이 다차원적이며 응답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 - 교회 안에서 여성 리더십의 배제 현황, 성평등적 성경해석, 삽화나 건물 구조 등에서의 성별 고정관념 - 등을 질문하는 설문조사의 영향이 응답자의 인식에 변화를 미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 남성과 여성의 성평등 인식 차이

남성중심적 본문 및 가르침에 '매우 비동의한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또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은 6-2번의 자녀출산, 7-2번의 여성 목사 안수의 금지, 8-2번 여성의 보조적 역할 강조, 9-2번 여성에게 순종 강조와 마지막으로 11-2번에서 여성을 유혹의 담지자로 간주하는 문항이다. 이와 같은 인식 차이는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강한 신앙심 집단에서도 일반 집단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성들은 교회의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1020세대의 남성들은 한국 교회에서 강조한 교회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는 앞으로 한국 교회 내 젊은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대와 20대의 인식 차이

전반적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10대보다 20대가 성평등 개념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남성이 가장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에 따라 10대 여성에 비하여 20대 여성의 성평등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강한 신앙심 집단과 전체 집단의 인식 차이

보다 분석적인 성찰을 위하여 모태 신앙 및 교회 연한 7년 이상인 집단과 본인의 신앙심이 강하거나 강한 편이라고 대답한 집단을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모태신앙 집단과 전체 집단의 결과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강한 신앙심 집단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강한 신앙심을 지닌 집단은 교회의 남성중심적 성경해석에 동의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예를 들어 3번 문항에서 제시한 성경구절과 이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전체 집단의 응답과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질서이다.'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성경해석에 대한 다른 문항(3번~11번)의 응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해석을 제외한 교회 환경이나 문화 등에 대해서는 강한 신앙심 집단 역시 일반 집단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강한 신앙심 집단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회 구조 등에 대한 관심은 일반 집단에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국 교회의 과제

정성적 연구인 3차례의 집단회와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과제를 주요 질문하였다. 남성중심적인 한국 교회의 성경해석과 문화의 변화, 성경 속 여성의 리더십의 발굴과 교육, 관계성에 기초한 신앙의 재개념화 등의 거시적 전환이 요청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교회 문화의 전반적인 전환의 필요성

청년들이 보수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유에 대하여 남성 목사 중심적 교회 구조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경해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성평등적 인식

및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한 재교육과 담론, 성경을 시대의 흐름 및 문화와 함께 보고자 하는 신학적·해석적 노력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교회의 환경과 건축물, 교재 등 모든 것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성경적 해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관계성에 기초한 신앙의 재개념화와 이의 적극적인 공론화**

성평등은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이를 공정하게 대접하기 위한 담론이며, 이러한 상호연대적 관계성이 신앙이라는 신앙의 재개념화의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 **성경적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교육의 필요성**

중등부 학생이 성경 속 여성리더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보고에 이어 성경 속의 여성들에 대한 재해석과 문혀진 여성들의 발굴 및 교육이 강하게 요청되었다. 교회 교육에서 성경 속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주체적인 리더나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에 서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0 교회 성차별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YWCA  서울특별시